

광 고

원양산업

제 1135 호

(2021년 7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1년도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4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차 업계 T/F 회의 개최 / 5

■ 협회 6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6

■ 오징어 요리 만들기 / 15

(오징어 링튀김)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1년 6월 보고 내용 / 16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태국 가다랑어, 톤당 1,450 달러로 상승 / 20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어획량 부족에도 안정적 / 20
- 중서부태평양 대형 황다랑어 어획 회복 징후 / 21
- 선망선 조업 경비, 유가 급상승으로 부담 가중 / 21
- 전세계 운임비 폭증, 참치 산업에 영향 우려 / 22
- 운임 폭등, 에콰도르 참치 업계에 기회 제공? / 22
- IOTC 정기총회,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합의 / 23
- EU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 허용량 소폭 감소 / 23

- 황다랑어, 비타민 B3 가장 많이 함유 / 24
- IATTC 특별회의, 합의 무산 / 24
- 日 재무성, 5월 참치 수입통계 발표 / 25
- 日, 아카미(붉은살) 참치 공급난 / 25
- OPRT 세미나, 일본 횡감용 참치 시장 동향 분석 / 26
- 日, 태평양 참다랑어 TAC 20% 확대안 / 26
- 세계 참치캔 시장, 2030년 11조원까지 성장 전망 / 27
- 미국 1분기 참치캔 수입, 13% 감소 / 27
- 미국, 1분기 태국 참치 자숙 로인 수입 24% 감소 / 28
- EU, 1분기 중국산 참치 자숙 로인 수입 감소 / 28
- 황다랑어 부족, 아시아 참치 가공업에 영향 / 29
- 에콰도르, 1분기 EU 참치캔 사업 치명타 / 29
- 마주로 5월 참치 전재 대폭 상승...반등 조짐 보여 / 30
- 파푸아뉴기니-키리바시, PNA 주요 전재항 도약 / 30
- 태국,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급 하락 / 31
- EU 어선, 가봉 EEZ 조업 재개 / 31
- 운반선 활용 등 적절한 폐기물 관리 필요성 제기 / 32
- 카보베르데, 노르웨이 회사에 참치 양식장 사용 허가 / 32
- Bumble Bee, MSC 2022년 목표 달성 순항 중 / 33
- 대만 FCF, 중서부태평양 FAD 어업 MSC 기준 충족 / 33
- 몰디브 참치 어업, 지속가능성 유지로 위기 / 34
- 마루하 니치로, 일본 참치 가공업체 인수 / 34
- 日, 499톤급 원양참치 연승선 준공 / 35
- 日 기업, 참치 양식용 배합사료 '튜나푸드' 주목 / 35
- PNG, 15년만에 참치산업특구 프로젝트 재개 / 36
- EU, 카보베르데 원산지 규정 완화조치 승인 / 36

Contents

- 선망선 그물, '유령 장비' 될 수 없는 이유 / 37
- 필리핀 CNPF, PCX 통해 플라스틱 중립 인증 취득 / 37
- Atunlo, 참치 자숙 신제품군 출시 / 38
- 日, 참치·가다랑어 훈제 슬라이스 제품 인기 / 38

■ 오징어어업 동향

- 일렉스 오징어, 어획 호조로 어가 하락 / 39
- C24 결의안, 아르헨티나-영국 양자 대화 요구 / 39
- 남대서양 기구 “中 오징어 조업 중단 무의미해” / 40
- EC, 포클랜드 오징어 75,000톤 무관세 수입 허용 / 4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서베링해 명태 어업 MSC 인증 취득 / 41
- RFC, 2021년 상반기 수산 가공품 생산 22% 증가 / 41
- 알래스카 명태, B시즌 생산 전망 어두워 / 42
- 러시아 명태 업계, 재고 과다로 냉동 보관 한계 상황 / 42
- 명태 '속근 단백질', 노년 여성 근육량·근력 향상 / 43
- 日 “명태 단백질, 10대와 20대에게도 효과 있어” / 43

■ 공치어업 동향

- 日 수산청, 공치 흥어 분석·대응책 검토회 개최 / 44
- 북태평양 공해서 공치 어선 약 30척 조업 / 44
- 日, 불법 수산물 유통 규제법 검토회 개최 / 45
- 북태평양 공해 공치, 지난 어기보다 큰 편 / 45
- 日, 러시아 수역 공치조업 9월 확정 / 45

■ 일본 수산 동향

- 日 수산청, 2020 수산백서 발표 / 46
- 日, 에너지 절약 가능한 프로펠러형 키 출시 / 46

- 오염 처리수 해양방류 관련 일본 언론 동향 / 47
- 日, '자본성 대출' 대상 농림수산까지 확대 추진 / 47

■ 각국 수산 동향

- WTO, 수산보조금 협상 합의 시한 9월로 연기 / 48
- G7 지도자, 국제 공급망 강제노동 근절 결의 / 48
- 크릴 업계, 자체 보존 계획으로 MPA 대체 방안 모색 / 49
- EC, 남극해 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 / 49
- 식물기반 인공어육 제품, 지속 성장 전망 / 50
- Aker BioMarine, 크릴 탐색 무인수상정 신조 / 50
- 中 수산업계, 엄격한 정부 통제로 생산 차질 / 51
- 中 잔장항, 아시아 11개국 냉동제품 수입 제한 / 51
- Norebo, 1억 1,600만 달러 규모 인수 '청신호' / 52
- ICES, 바렌츠해 대구 쿼터 20% 삭감 권고 / 52

■ 쉬어가는 난 (詩)

- 현시(사모아 선원묘지 위령탑) <박목월> / 53

■ 국내 수산 뉴스

- 해양수산부 원양어획물 전수조사, 불법어획물 '0' / 54
- 해수부, 불법어업 대응 관련 세계해사대학과 협력 / 54
- 북극 공해 조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레짐 가동 / 55
- 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 보호구역 지정 / 55
- 해양수산부, 미주서안 수산물 수출에 선복 우선 배정 / 56
-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우리측 전문가 참여” / 56
- 앞으로는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 57
-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국수산식품관 개설 / 58
- 해양수산 1000인회 출범 / 58

2021년도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케이프타운 협약 등 주요 현안 사항 논의



우리 협회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6월 28일 우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을 비롯,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원산업 이명우 사장, 동원수산 왕기철 사장, 사조산업 김치곤 사장, 신라교역 김호운 사장,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회장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 대응, △정부, 케이프타운 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대응, △원양어선 역사박물관 관련 건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동향을 보고했다.

회장단은 주요 현안 사항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 대응은 업계가 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협회 회장단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TF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케이프타운 협약 비준 건의 경우 향후 3차례 개최 예정인 정부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우려 사항 및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원양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건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 시 용역비를 협회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차 업계 T/F 회의 개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 논의

우리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차 업계 T/F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라교역, 사조산업, 동원산업, 정일산업, 예람교역, 흥진실업 등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계 T/F’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경삼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등이 참석했다.

동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사항에 따라 업체는 회사별로 안전보건체계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위한 계획 등을 법 시행 전(2022.1.27)에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가이드 등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각 회사에서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23일에 2차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한편, 우리협회는 이날 회의 전에 김엔장 법률사무소가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대응 웨비나’에 참가해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윤춘법무법인에서 7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관련 웨비나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회원사에 개최를 안내했다.

인 사

◇ 부장 승진

-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대우 → 부장
- 총무부 강성현 부장대우 → 부장
-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대우 → 부장

◇ 차장 승진

- 총무부 박설진 과장 → 차장

◇ 과장 승진

- 기획홍보부 공길웅 과장대우 → 과장
- 기획홍보부 김영수 과장대우 → 과장
- 해외협력1부 최봉준 대리 → 과장대우

◇ 주임 승진

- 해외협력1부 백상진 사원 → 주임

협회 6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1년도 협회비 부과추진
 - '21. 5월분 업종별회비, '21. 3/4분기 월회비, '21. 3차분 기본운영회비
 - 1년 이상 미납사 3개사 대상 납부 촉구 안내
- 협회 회원 탈퇴통보
 - 탈퇴업체 : 소진해운(주) (업종 : 前. 참치연승)
 - 탈퇴사유 : 선박 미보유
 - 탈 퇴 일 : 2021.6.30
- '21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제출(서초구청)
- 5층 수익사업 관련업무 추진
 - 前 임차인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 어선원 안전관련 국제동향 전문가 초청 교육 참석
 - 일자/장소 : '21.6.29, 13:30/ 세종 TOZ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2명, 어선안전 정책과 1명 / 협회 회원지원부 사원, 해외협력1부 대리, 해외협력2부 과장, 총무부 과장
 - 내용 : 케이프타운협정 비준 준비의 필요성 등
- 제15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 일자/장소 : '21.7.9, 14:00 / 온라인
 - 참석자 : 협회 전무
 - 내용 : 해양산업분야에서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활동하며, 탁월한 업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 추천

기획홍보부

- WTO 수산보조금 관련 협의
 - 일시/장소 : '21.6.22, 15:00/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시민환경연구소 / 협회 기획홍보부, 회원지원부 등
 - 내용 : WTO 수산보조금 관련 미국의 제안서에 대한 원양업계 입장 및 주요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등 업무협의
-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1.6.28, 11:00~12:3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협회 회장단사
 - 내용 : 외국인해기사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케이프타운 협정 관련 대응 및 원양어업 역사 박물관 관련 사항 등 논의
- 2022년 원양부문 정부예산 확보 관련 업무협조 (해수부 원양산업과)
 - 원양어획물 가공업체 조사 및 제출
 - 원양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도입 관련 자료
 - 원양어선 리모델링(중고선 도입에 따른 수리 및 개조) 수요조사
 - 원양어선 리모델링 지원사업 수요조사
 - 현존선 또는 중고선도입시 수리·개조 관련 비용 및 시기 수요조사
 - ※ 11개사 48척 자료
- 원양산업지 6월호(제1134호) 제작
 - 협회소식 3건(소통릴레이 원양업계 간담회 개최, 제1차 원양노사단체교섭협의회, 맹성규 의원에 감사패 전달)

- 국내소식 7건, 해외수산정보 59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6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10호 6.16, 111호 6.23, 112호 6.30, 113호 7.7,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10호 정보 20건(IOTC 정기총회,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합의/ 日 러시아 콩치 조업, 9월 1일부터 재개 전망/ 2020 콩치 수급동향)
- 제111호 정보 20건(일본 횡감용 참치 시장 동향 분석/ EC, 포클랜드 오징어 75,000톤 무관세 수입 허용/ WTO 수산보조금 협상 예상보다 느려)
- 제112호 정보 22건(황다랑어, 비타민 B3 가장 많이 함유/ 알래스카 명태, B시즌 생산 하락전망/ C24 결의안, 아르헨티나-영국 양자대화 요구)
- 제113호 정보 22건(日, 499톤급 원양참치 연승선 준공/ 러시아, 서베링해 명태어업 MSC인증 취득/ 일렉스오징어, 어획 호조로 어가하락)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협회장 인터뷰 작성·송부(6.17, 수산인신문)
- 수산인신문 창간 29주년 특별대담(10면), “우리 원양어업은 국제 경쟁력 있는 중요한 식량사업”
- ‘21년 5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227,878	118
- 참 치	130,207	108
· 횡감용	14,292	94
· 통조림용	115,915	110
- 명 태	0	-
- 오징어	65,866	191
- 콩 치	0	-
- 기 타	31,804	83

회원지원부

- 2021년도 제2차 원양어선원 가족 해외조업현장 방문사업 운영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6.14 / 서면의결
 - 참석자 : 선원복지고용센터, 부산해양청 노정담당관, 원양노조 / 협회
 - 내용 : 원양어선원가족 해외조업현장방문 사업계획 변경안 의결 등
- 케이프타운 협약 대응을 위한 업무추진
 - 가. 케이프타운 협약 대응을 위한 TF 키오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6.15, 14:00 / 정부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수부, 한국선급 등 TF 구성 기관·위원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케이프타운협약 TF 구성 확정 및 협약 대응 등 논의
 - 나. 케이프타운 협약 대응을 위한 TF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6.28,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한국선급 등 TF 구성 기관·위원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케이프타운협약 협약 대응 등 논의
 - 다. 케이프타운협정 도입을 위한 업계간담회 등 일정 알림(회원사/7.8)
- 선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관련 업무추진
 - 가. 선원 예방접종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6.29,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해운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필수활동 목적 출국선원 예방접종 관련 논의
 - 나. 선원 예방접종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7.6, 16: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해운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필수활동 목적 출국선원 예방접종 관련 논의

다. 선원 예방접종 희망자 명단 제출(해수부/6.25)
- 80명

라. 선원 예방접종 취소 희망자 명단 제출
(해수부/7.9)
- 21명

마. 선원 예방접종 신청을 위한 안내(회원사/7.8)
- '21.9월30일까지 출국자 대상

○ 2021 임금교섭관련 업무추진

가. 노사위원회 개최

- 제3차 노사위원회 개최(6.16, 12:00 / 협회)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사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제4차 노사위원회 개최(6.23, 14:00 / 영상회의)

- 제5차 노사위원회 개최(7.1, 14:00 / 영상회의)

- 제6차 노사위원회 개최(7.7, 12:00 / 협회 부산지부)

나. 노사단체교섭협의회, 양위원장간 간담회 개최

- 제2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6.16, 14:30 / 협회)
· 참석자 : 노·사 교섭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제3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7.7, 14:30 / 협회 부산지부)

다. 제1차 노사 양위원장간 간담회

- 일시/장소 : '21.6.25, 12:00 / 부산
- 참석자 : 노·사 양위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수산혁신 TF 수산기업분과 점검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6.17,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산기업 및 전문가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수산기업분과 수산혁신 계획안 설명 및 업계·전문가 의견청취 등

○ 선원법 개정관련(유급휴가) 업무추진

가. 선원법 개정관련 업무협의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6.17, 10:3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운협회, 해운조합 등 유관 단체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국회 선원법 개정 검토안 관련 의견청취 및 논의

나. 개정 관련 협회 의견 제출

(해수부, 국회 최인호 의원실/6.23, 6.24)

○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준비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6.17, 10:3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운협회, 해기사협회 등 / 회원지원부 사원

- 내용 : 세미나 주제·일정·개최방식 등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협의

○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관련 제2차 노사정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1.6.22, 14: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유관기관 및 단체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정부의 비준 추진 계획 및 협약이 업계에 미칠 영향 논의

○ 원양어선 안전관리 표준지침 배포(회원사/6.14)

- 선박별 안전관리지침 작성하여 제출(7.13) 및 어선 비치(7.31) 요청

○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회원사/6.17)

- 선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침에 개정내용 수용 등

○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업무 추진

가. 2021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현황 조사자료(1차) 제출(해수부/6.18)

- '21년 배정인원 55명 → 1차 조정인원 55명

나. 2022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등 제출
(해수부/6.28)

- '22년 필요인원 60명

- 다. 2021년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제 1차 조정결과 알림(해당선사/7.9)
 - 조정 후 배정인원 11개사 55명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회원사/6.21)
 - 어획물 전재 관련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2021년도 원양선원 묘지관리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요청(해당 한인회/6.21)
 - 현재까지 사업 주요 추진내용 및 예산사용 현황 등
- '22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안 삭제 품목 검토의견 제출(해수부/6.21)
 - 황새치 냉동 필렛 HSK 코드 삭제 제외 의견 제출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 마산, 목포, 통영검역소/6.17, 6.18, 6.24)
 - 10명(한국 8명, 인도네시아 1명, 필리핀 1명)
 - 남아공·브라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변경 안내 및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안내(회원사/6.22)
 - 인도네시아 선원 출국시 검역확인 관련 건의서 제출(해수부/6.24)
 - 항만입국 시 발급된 코로나 검역확인증으로 출국 가능토록 건의
 -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연장조치(31개국)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알림(회원사/6.25)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 통영검역소/6.28, 6.30, 7.7)
 - 9명(한국 6명, 인도네시아 3명)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회원사/6.30)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개정(제10판) 안내(회원사/7.2)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회원사/7.5)
 -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2판) 안내(회원사/7.6)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시 유의사항 준수 철저 요청(회원사/7.8)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개정(제10-1판) 안내(회원사/7.8)
 - 러시아 PCR 검사기관 지정해제 알림(회원사/7.9)
- 의료관리자 자격 요건별 배치 현황 제출(해수부/6.28)
 -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의료관리자 교육 이수 후 시험합격자 '21.5월말 기준 총 297명
- 선원법 개정소요 제출 요청(회원사/6.29)
 - 선원법 및 선원법 하위법령과 관련한 개정소요 조사
- 임금채권 및 송환기금증서 관련업무 추진(7.1)
 - 가. 신규 : 해천물산(주) 해천101(참치연승/423톤)
 - 나. 승계 : 원양물산 101동해
 - 102 금양(꽂치봉수망/544톤)
- 선원 수장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해수부/7.2)
 - 더민주 윤재갑 의원, 수장현황·시신 선상보유 입항사례 등
 - 시신 선상보유 입항 2건 (2016.1.1-2021.6.30)
- 오션폴리텍 해기사 교육과정 수요 제출 요청(회원사/7.5)
 - '22년도 오션폴리텍 해기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 해적관련 업무추진
 - 2022년도 청해부대 파견 연장에 대한 의견조회(인도양 출어선사/7.5)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제14차 ICCAT IMM(통합 모니터링) 작업반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6.14-17,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미국, 일본 등 ICCAT 회원국 / 협력1부 과장 외 1명
 - 내용 : 해상입항전제, VMS 개선, 참다랑어 조업 허가기간 외 전제 시 조업선 목록 포함 여부 등 논의
- 원양산업법 시행규칙 관리대상종 지정 관련 정부-업계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6.18,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수과원 원양자원과 / 협회 해외협력1·2부
 - 내용 : 유관기관과 추가 논의하여 업계 요청사항을 검토, 논의 후 업계 대상 추가 설명회 진행 예정
- 2021년 OPRT 세미나 및 총회 참석
 - 일시/장소 : '21.6.21-22 / 화상회의
 - 참석자 : 일본, 대만, 중국 등 OPRT 회원국 / 협력1부 과장 외 1명
 - 내용 : 일본 내 참치 소비 동향 발표,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통과, IUU 조업 근절 눈다랑어 자원 회복 촉구를 위한 OPRT 결의 승인
- 제5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기간/장소 : '21.6.23, 16: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출어사 / 협력1부 과장
 - 내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지침(안) 검토 후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제8차 IOTC TCAC(어획할당기준 기술위원회) 참석
 - 기간/장소 : '21.6.28-7.1,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몰디브 등 IOTC 회원국 / 협력1부 과장
 - 내용 : 의장(안)을 바탕으로 어획할당 자격, 기준 등 논의. 우리나라 입장 반영한 별도 문구 제출 예정
- 제6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6.30, 16: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출어사 / 협력1부 과장 외 1명
 - 내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지침(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1차 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7.1-2,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남아공, EU, 일본 등 패널1 회원국 / 협력1부 주임
 - 내용 : 우리나라 열대성다랑어 조업계획서 잠정 승인, FAD set 추가 조치 과학 정보 부재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2021년 5월 태평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소진실적 확인
 - WCPFC 선원 근로표준 보존조치(안) 관련 업계 의견 제출(해수부)
 -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소진 현황 및 전배 실적 제출(해수부)
 - WCPFC 해양포유류 취급 및 방류 지침 미국 작성(안) 의견조회
 - CCSBT 어획실적(5월) 및 양륙계획(7월) 제출(해수부)
 - 2021년 ICCAT 참다랑어 조업선 자료 제출(해수부)
 - 2020년 WCPFC 전제실적 제출(과학원)

- 참치어업 지원사항
 - 키리바시 입항 전 해상 대기기간 조정 요청
 - (배경) 키리바시에서 COVID 19 감염국 선박은 입항 전 해상 대기기간 연장 통보(14일→30일)
 - (요청내용) 30일 대기는 조업 및 키리바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박별 PCR 증서 등 증빙자료 확인 후 기존 기간(14일)으로 조정 요청
 - 참치연승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및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 수정(안) 제출
 - 키리바시 연수생(6인) 체류자격 부여특례 신청 방법 안내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솔로몬, PNG, FSM 수역 입어료 납부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 가. 러수역 조업 보고(6.21-6.30)제출
(해수부, 주러한국대사관)

업종	어종	조업량	누계량	소진율(%)
명태 트롤	명태	966	1,507	5.31
	대구	0	0	1.00
	청어	9	9	3.45
대구 저연승	대구	203	463	9.25
	가오리	31	104	20.78
꽂치 봉수망	꽂치	0	0	0.00

- 나. 북양트롤 업무추진
 - '21년도 러수역 조업규정집 제작 및 배부 알림
(6.18 / 북양·대구·꽂치위원장)
 - 조업선 통제 감독관 교체 승선 조치 알림
(6.30 / 북양·대구위원장)
 - 러수역 조업선 입어료 송금 알림
(6.30 / 해수부, 주러대사관)
 - 북양트롤쿼터(2차분), 대구저연승쿼터(2차분), 꽂치봉수망쿼터(1차분)

- '21년도 러시아경제수역 조업 허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7.9 / 해수부, 러수산청)
 - * 선원수 90명으로 변경
- 다. 꽂치봉수망 업무추진
 - '21년도 러수역 입어시 꽂치봉수망 통역관 육상 배치 허가 내용알림(6.14 / 꽂치위원장)
 - 러수역 통역관 및 조업선 연락처 등 관련 서류제출(6.14 / 사할린국경수비대)
 - 꽂치봉수망 조업선 VMS장비 CFMC 추가 등록(6.22, 6.25 / CFMC)
 - 러수역 꽂치 조업허가 신청서제출(6.29 / 해수부, 러수산청)
 - CFMC 서비스이용료 선지급제도 알림(7.5 / 꽂치위원장)
 - 러수역 조업선 VMS장비 추가 등록 완료 및 조치사항 알림(7.8 / CFMC, 러수산청, 유앤씨)
- 라. 러시아 외국인 투자 요건 강화 관련 법류 개정 동향 및 협의회 개최 알림(7.9 / 한러위원장)
 -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권 승인 신청서를 러시아 반독점청에 제출 혹은 기업 지분을 25%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동향 및 협의회 개최 알림
- 오징어채낚기 업무추진
 - 가. 오징어 정부비축 관련 해수부 방문면담
 - 일시/장소 : '21.6.14, 14:00 /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수부 유통정책과장, 수협중앙회, 아그네스, 승진수산/ 해외협력본부장의 1명
 - 내용
 - 원양채낚기 오징어 공급량 증가로 어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구매 조기실시 요청
 - 원양어획물 상태 관련 수협 및 업계간 협의
 - 정부는 오징어 반입물량 및 어가 상태를 파악 후 정부 구매 조속히 실시 예정임
- 나. '21년도 정부비축 냉동오징어(원양산) 구매입찰 1차 안내(6.22 / 오징어채낚기위원장)
 - (2M) 6만팬, (M) 6만팬, (R) 6만팬 // 3,510톤
 - // '21.6.29 낙찰예정

- 다. 22어기 PSC 대비 드래곤社 요청서류 안내 (6.22 / 오징어채낚기위원회)
 - IMO소각기 설치여부(일자) 포함 요청서류 안내
- 라. 수입 냉동오징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건의 요청 (6.23 / 해수부, 수품원)
 - ※ 전국오징어생산자연합회 협조요청 및 해수부 건의 예정
- 마. 22어기 PCS 컨설턴트 요청서류 제출 완료 (7.7 / 드래곤社)
 - 25척 선박도면, 선박안전장비 등 조사항목(22개), 증빙서류
- 바. 제3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7.8, 13:3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각 사 대표, 포클랜드주재원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결과
 - '22어기 항만검색 대비 체크리스트 확인 후 협회로 제출키로 함
 - '22어기 기존 입어기간(2.1-5.31) 유지키로 합의
 - '21어기 포클랜드 선박검사 모범사례 '아그네스 108호' 선장에 대해서 감사패 및 부상 전달키로 함
 - 주재원 특별 상여금, 공동부담금에서 지급
- 원양어선안전편드사업관련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1.6.14, 15:00 /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장, 수협중앙회, 아그네스, 승진수산, 한성기업 / 해외협력본부장 외 1명
 - 회의결과
 - '21년도 사업대상자 확대는 품치/오징어(3척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하고, 실정이 없는 경우 업종 확대를 검토
 - 취득세 감면 문제 등 추가적인 혜택 지원 등 협의
- UN 공해저층어업 이행고시 개정 관련 해양포유류 저감조치계획 업무추진
 -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수립 및 요청(6.17 / 남빙양어업선사, 남서대서양트롤선사)
 -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제출 (6.23 / 해수부)
 -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공통계획 재검토 요청 (6.25 / 남빙양어업선사, 남서대서양트롤선사)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업무추진가. '21/'22어기 CCAMLR 수역 입어 신청료 납부 알림(6.16 / 해수부, 남빙양위원회)
 - 납부완료 송금전문 해수부 제출(6.22 / 해수부)
- 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과학위 워킹그룹 참석
 - 일시/장소: WG-SAM '21.6.28~7.2, 16:00
WG-EMM '21.7.5~7.12, 19: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수과원 원양자원과, 남빙양위원회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한국의 로스해 MPA수역 과학조사 5년 연장
 - MPA 크릴 어군 밀도는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다고 확인
 - 호주, EU, 영국은 크릴 보호 주장, 중국 및 러시아는 조업으로 자원량 확인하자는 입장차 확인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이행위 및 당사국회의 참석
 - 일시/방식 : 이행위 '21.7.1~3, 15:00
당사국회의 '21.7.5~9, 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협력센터, 수과원, 정일산업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남아공 및 스리랑카 IUU 선박 2척 만장일치 부재로 IUU 선박 목록 유지키로 합의함
 - VMS 구축 위한 보존조치 제안서 회기간 중 논의키로 합의함
 - 데이터 표준 보존조치 표본 채취 의무화 조항 제외하고 채택됨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보존조치 준수 통지 요청 건의(7.6 / 해수부)
 - NPFC 협약수역 내 대만 및 중국 어선들이 170 이동 지역에서 6월부터 7월까지 콩치 조업을 삼가도록 각 국이 조치토록 사무국에 건의요청
- UN 공해저층어업 이행고시 개정 관련 해양포유류 저감조치계획 업무추진
 - FAO41해구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계획(안) 제출(7.2 / 해수부)

부산지부

- 부산수산정책포럼 참석
 - 일시/장소 : '21.6.29, 14:00/자갈치수협공판장
 - 참석자 : 협회장, 부산지부장
 - 내용 : 류청로 이사장 취임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 일시/장소 : '21.7.8, 11:00/ 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6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6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49개사 483건(6.1~6.31)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2개사 4척(참치선망1, 참치연승3)
 - 출항 : 5개사 8척(참치연승8)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 가. 제25차 IOTC 연례회의 참석(이행위, 재정위, TCMP 동시 개최)
 - 일시/장소: 21.05.30~6.11/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협회 및 업계
 - 내용: 황다랑어 보존조치, FAD 조치 등 개정 논의
 - 나. IATTC 제97차 특별회의 참석
 - 일시/장소: 21.06.7-10, 23:00/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협회 및 업계
 - 내용: 열대 다랑어 대한 보존관리조치 업데이트 및 추가 사항, 과학위원회 권고 사항 논의
 - 다. 제3차 PSMA 당사국 회의
 - 일시/장소: '21.5.31~6.4/ 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원산과, 수품원,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PSMA 이행평가, 글로벌 정보교환시스템 (GIES), 개도국 필요사항 등
 - 라. 제42차 FAO 총회
 - 일시/장소: '21.6.14~6.18/ 화상회의
 - 참석자: 외교부,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FAO 협회,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하부위원회 보고서 승인, 이사국, 이사회 의장 선출, 기본전략 2022-31, 중기계획 2022-25, 업무예산 프로그램 등
 - 마.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대비 TF 회의 참석
 - 일시/장소: '21.6.15/ 세종청사 4동 중회의실
 - 참석자: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 등,

어선안전정책과 김도한 사무관, 해양수
산과학기술연구조합 박주삼 대표, 해양
교통안전공단, KR, 원양협회 소기동 부
장, 협력센터 김선경 전문관

- 내용: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반별 역할 확
정 및 추진 사항 공유

바. 제1차 남극해양보호구역(MPA) 증장기 대응 전
략 수립 연구 워크숍

- 일시/장소: '21.6.2/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외교부, 극지연구소, 민
간 전문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김
수민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내용: 남극해양 생태계 보전과 협력적 이용을 위한
대응전략 기획 연구 수행 현황 및 전망 논의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가. 원양산업뉴스 34건 업로드

나. E-NewsLetter 5월호 발송

다. OFIS 유지보수 용역 2/4분기 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6.10, 국총과)

○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게시 8건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

가. 키리바시 사업 추진

- 사업내용(계획) 변경 신청(6.11, 국총과)
- 어시장 설비 제작, 구매 원가계산 용역 완료(6.9)
- 어시장 사업 협의서(협력센터 및 키 수산부) 개정
안 작성 및 공유(키 수산부)(6.17)

나. 투발루 사업 추진

- 지원물품 수량 및 품질 확인 완료
(투발루 수산부, 6.21)
- 지원물품 구매 및 운송 업체 잔금지급(6.21)
- 인수인계증서(안) 공유(투 측 수산부)(6.18)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가. 조사자료 보완

- 마이크로데이터 보완, 생산 데이터 및 수출 데이
터 정리

나. 사업 진행현황 중간점검

- 일시/장소: '21.6.15/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원양산업과 서민혜 사무관, 성미경 주무
관, 협력센터 윤유정 행정관

- 내용: 2021년 사업 중간점검, 선원임금 관련 논의
다. 원양어업 통계조사 관련 자문 요청

- 일시/장소: '21.6.25/ 케이스택
- 선원임금조사방법 및 무응답처리방안 관련 자문
요청

라. 원양어업 생산동향('21.4.) 작성 및 OFIS 게재

○ 해외투자 전문교육 및 투자정보조사

가. 해외투자정보조사 관련 자문 요청 출장

- 일시/장소: '21.6.11/ 서울 (사)해양수산과학기
술연구조합

- 출장자: 윤유정 행정관, 이원영 행정관
- 내용: 해외투자정보조사 사업 및 수산분야 해외
진출 가이드북 제작 연구용역(가칭) 관련
자문 요청

나. 해외수산투자워크숍 관련 주한파푸아뉴기니 대
사관 출장

- 일시/장소: '21.6.11/ 서울 주한 PNG대사관
- 출장자: 윤유정 행정관, 이원영 행정관
- 내용: 워크숍 참석 요청, 수산업 및 투자관련 정
보 요청

· 필요서류 샘플요청, FDI 수산분야 협상 범위 문의





오징어 링튀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조리시간 : 25분
- 재료 : 오징어 1마리, 완두콩각지 100g, 달걀 1개, 우유 1/3컵, 소금 1/2작은술, 밀가루 6큰술, 베이킹파우더 1/2작은술, 레몬 1/2개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는 내장과 함께 다리를 몸통에서 깨끗하게 떼어낸 다음 젖은 행주를 이용하여 껍질을 벗긴다. 몸통 부분을 6mm 두께로 썰어 링모양이 되게 만든 다음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둔다.
- ② 완두콩 각지는 등쪽 심지를 뜯어내고 소금으로 살짝 비벼놓는다.
- ③ 밀가루는 곱게 체에 걸러둔다.
- ④ 유리볼에 달걀 흰자를 넣고 우유, 소금, 후춧가루와 체에 걸른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살살 섞어 튀김옷을 만든다.
- ⑤ 오징어와 완두콩 각지를 ④에 넣어 튀김옷을 살짝 입힌뒤에 170°C의 기름에 튀겨낸다.
- ⑥ 접시에 오징어 링튀김과 완두콩 각지 튀김을 보기좋게 담은 후 레몬을 모양있게 썰어 장식한다. 완두콩 각지가 없을 때는 집에 있는 계절 야채를 튀겨도 좋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6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KOICA 지원 고등기술전문 대학(ISEP) 개교식 거행

○ Macky Sall 대통령은 6.29일 잠 나쥬 고등기술전문대학(ISEP) (KOICA 지원) 개교식을 거행하였

으며, 김지준 주세네갈 대사가 참석했다.

○ 잠나쥬 대학은 코이카가 2015년~2021년까지 940만 불 지원을 통해, 지상 3층 규모의 3개 교육동 (ICT학과, 자동차학과, 행정시설)을 비롯해 강당과 도서관, 자동차 실습장 등으로 현대화된 교육 시설을 갖추며 ICT와 자동차 산업 수요에 특화된 전문 대학으로 개교했다.

나. IMF, 세네갈에 3,500억 CFA 지원(6.7)

○ 이는 18개월 만기의 확장차관으로, IMF는 그 중 최소 1,000억 CFA를 긴급 조달할 예정이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상	1,054
	1.8kg 상	1,012
	1.5kg 상	885
황다랑어	10kg 상	2,158
	3.4kg 상	1,724
	1.8kg 상	1,012
눈다랑어	10kg 상	1,054
	3.4kg 상	1,054
	1.8kg 상	1,012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435 유로/MT	경유	'21.6.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현재 피지수역 조업 및 원양어업 어획량이 회당 1.5~2.5톤 정도로 호조이지만, 평균 작업일이 15-30일 정도로 짧은 피지수역 조업의 경우 출항 직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입항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선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의료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지 정부는 락다운 없이 백신 접종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790명을 넘어 800명에 근접한 상태이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5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03달러/MT	M.G.O	'21.7.8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조업 어획은 날개다랑어 0.2~0.5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5톤으로 저조하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6월 18일부터 전월과 같이 1개월간 코드블루를 지속한다.
- 현재 사모아 코로나 대응팀은 입국 희망자가 항공권 구매 전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는 입국 방침을 논의 중이다.
- 이 방침이 도입되면 사모아 입국 전 호놀룰루에 머물러야 했던 격리 절차도 없어지게 된다. 사모아 부총독에 따르면 근시일 내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귀환 항공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8월부터 일반 항공은 한 달에 2회 운항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 7월항공 일정은 9일/29일 2회이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330	
눈다랑어	라운드	1,130	
가다랑어	라운드	1,13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28(gallon)	'21.7.5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저인망 트롤 조업 규제

- 뉴질랜드 해양공간계획으로 인해 추후 3년간 북섬 하우리카만 보호 구역 18곳에서 저인망 트롤 조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 남섬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에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보호 구역을 늘리고 저인망 트롤 조업 자체를 뉴질랜드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외국인 선원 의존도 조사 실시

- 코로나 사태로 인해 뉴질랜드의 높은 외국인 선원 의존도가 부각되었고, 미래 대비를 위해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 정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실제 외국인 선원 의존도가 파악되었고, 뉴질랜드 수산업계 차원에서 내국인 고용 계획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4,450	'Sea Jho Co.Ltd
	L	-	
	M	2,850	
	2M	2,650	
	S	2,500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EU, 가나에 두 번째 불법 어업 경고

- 가나 정부가 불법 조업 문제 해결 실패로 EU에 두 번째 옐로카드 조치를 받았다.

- Mrs. Hawa Koomson 수산양식개발부 장관은 이 기회에 EU와 협력하여 강력한 투명성 조치를 도입하고 가나의 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Nana Akupo Addo 대통령은 가나의 일자리와 식량 안보 보호 유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수산자원 회복 목적 2개월간 금어기 시행

- 가나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 목적으로 참치 어업을 제외한 소형 연안 어업 7.1~7.31, 대형어선 어업 7.1~8.31 기간 동안 금어기를 시행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700	
	10kg 하	1,360	
가다랑어	3.4kg 상	1,270	
	1.8kg 상	1,220	
	1.8kg 하	1,070	
	1.5kg 하	92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 급유	600달 러/kl	M.G.O	'21.6.30	
항만 급유	630달 러/kl	M.G.O	'21.6.30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7.3~7.20일까지 자바 및 발리 지역에서 기존 제한 조치보다 강화된 긴급 사회활동 제한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 자바-발리섬의 7개 지역(자카르타/반튼/서부자바/중부자바/동부자바/족자카르타/발리) 122개 군/시 지역에 적용되며, 나머지 레드존 지역은 PPKM Mikro가 적용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재택근무 강화, 전 교육활동 및 학습활동 온라인 수행, 슈퍼마켓-재래식당-식품점 20시까지 수용인원 50% 운영 등이 있다.
-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정부는 상반기에 실시된 PSBB(대규모 사회적 제약)와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나. 인도네시아 수역 외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 외국어선의 인도네시아 수역 불법조업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으나 단속 역량이 문제이다.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남지나해 북부 Natuna 해역과 Arafura 해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해군, 해안경비대, 해양경찰로 구성된 단속선 7척이 교대로 북부 Natuna해역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계속 자행 중이다.
-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4월 1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베트남 7척, 말레이시아 7척)을 나포하였고, 68척의 인도네시아 어선을 규정위반으로 단속했다.

- 특히 베트남 어선들은 양국 간 분쟁수역 근방에서 베트남 경비선의 비호를 받아 레이더를 켜서 인도네시아 단속선의 정보를 경비선으로 받는 수법을 이용, 저인망 어선으로 대량으로 어획한다.
- 인도네시아 단속선의 기지항구가 현장과 10~12시간 거리에 있는 Batam섬에 위치해 효율이 떨어짐. 이로 인해 현지 주민은 북부 Natuna지역에 기지 건설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다. 對중국 수산물 수출 증가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대중국 수출량은 1억 283만톤, 수출액 2억 2,854만 달러이다.
- 특히 새우 수출량은 2020년 4,774톤 수출로 2018년 1,811톤에서 163.61% 증가했다.

- 후지모리 후보는 투개표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개표 집계지의 무효 처리를 요청했다. 카스티요 후보 지지 세력은 당선자 공식 발표 지연 시 대규모 시위 및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 후임 대통령은 7월 28일에 취임해야 되지만, 위와 같은 대립 상황이 지속 중이고 선관위에서도 최종 당선자가 누구인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미지수이다.

라. 코로나 관련 동향(7.8일자)

- 확진자 2,074,186명. 사망자 193,909명.
- 현재 50~52세 집중 중이며, 47~49세 7월 10~11일, 45~46세 17~18일 집중 예정. 기저질환 보유 12~17세 7월 24일 집중 예정이다.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2021년 페루 중북부 수역 1차 멸치 조업

- 4월 23일 조업을 개시해 7월 7일자로 TAC의 95.5%인 239만 6,000톤을 어획했다.
- 조업 수역은 페루-에콰도르 국경 수역부터 남위 16도선까지이다.

나. 2021년 페루 남부 수역 1차 멸치 조업

- 7월 6일 조업을 개시해 첫날 867톤을 양륙했다.
- 조업 수역은 남위 16도선부터 페루-칠레 국경 수역까지이다.

다. 선관위, 대통령 결선 투표 결과 발표

- 페드로 카스티요 후보 득표율 50.125%, 케이크 후지모리 후보 득표율 49.875%로, 양 후보간 격차는 44,058표.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 종	조 사 일
PETROPERU	2.57달러/갤론	MDO. ULS	'21.7.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태국 가다랑어, 톤당 1,450 달러로 상승 FAD 금지 기간 시행 원인...운임·유가 불안요소

수개월 동안 하락세였던 태국 냉동 가다랑어 가격이 7월 초 FAD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서 상승했다. 높은 운임 문제는 여전히 업계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1.8kg 이상 가다랑어 가격은 현재 1,45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300 달러에 거래되던 6월 대비 11% 이상 상승했다. 가다랑어 가격은 3월부터 계속 하락세였으나 현재 상황이 역전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방콕에 들어오는 가다랑어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비축한 재고가 많기 때문에 가공업자 수요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공업자들은 FAD 금지 기간이 끝날 무렵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구매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가공업자와 수입업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참치캔 운임 급상승이다. 현재 다수의 구매자들은 미국행 운임으로 FOB 기준 평소의 3배를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대량 구매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주문 자체를 보류하게 될 수도 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태국 델타 변이 확산 등의 문제도 태국 가다랑어 가격에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7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어획량 부족에도 안정적 7월 하반기 어획량 증가 예상

현재 세이셸 냉동 가다랑어 가격(1.8kg 이상)은 톤당 약 1,120 유로(1,331 달러)이다. 이는 6월 초 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달 한때 1,115 유로(1,325 달러)까지 하락한 후 다시 회복되고 있다.

세이셸과 모리셔스의 참치 가공 공장들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원료를 구입하고 있다.

2021년 가다랑어 가격은 거의 변동하지 않고 1,050 유로(1248 달러)와 1,150 유로(1367 달러) 사이에 머물렀다. 6월 850 유로(1,011 달러), 9월 1,300 유로(1,545 달러)를 기록하며 큰 변동폭을

보인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소식통들은 7월 하반기 참치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5월부터 7월 상반기까지 어획량 부족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2021년 상반기 어획량은 다른 해와 비슷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양 선망 선단은 모잠비크 해협을 떠나 인도양 북부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10kg 이상 세이셸 황다랑어 가격은 세계 시장에서 황다랑어 원어 공급 감소 및 부족으로 2.5% 상승한 2,000 유로(2,378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30일자



중서부태평양 대형 황다랑어 어획 회복 징후 가다랑어 어획량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감소

중서부태평양 지역 데이터에 따르면 PNA EEZ와 주변 공해의 전체 어획량은 5월 12만 2,233톤으로 4월보다 6% 감소했다.

선망선들이 5월에 PNA EEZ에서 사용한 조업일수는 4,049일로 201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EEZ 조업 수준을 기록했다. 조업수역은 4월과 마찬가지로 중서부태평양 동부 수역에 집중되었다.

국가 수역별 조업 노력은 키리바시 EEZ에서 총 노력의 40%가 이뤄졌으며 나우루, 마셜 제도, 투발루 해역에서도 더 많은 조업이 이뤄졌다. PNG EEZ에서의 노력은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5월 키리바시, 나우루 및 인근 공해 어획량은 총 어획

량의 72%를 차지했다. 키리바시 수역의 선망선 어획량은 5만 3,783으로 2019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5월 일일 평균 어획량은 4월보다 17% 감소했다. 선망선의 모든 다랑어 어종 일일 어획량은 28톤을 기록했다. 국가 수역별로 보면 키리바시 일일 평균 30톤, 나우루 35톤이다. PNG EEZ는 21톤으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극심한 침체를 기록한 9kg 이상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5월에 일일 2톤을 기록했다. 반면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소폭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13일자

선망선 조업 경비, 유가 급상승으로 부담 가중 유가, 지난 6년간 최고가 기록

국제 유가가 지난 6년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심리적 장벽인 75 달러선을 깨뜨리자, 연료비 상승에 대한 선망선 선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몇 주간 상승 추세였다. 브렌트오일 선물 7월 6일자 가격은 76.98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선망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박용 경유(MGO)의 가격이 4월 중순부터 상승하고 있다. 세계 최대 급유항인 싱가포르의 5월 초 MGO 가격은 톤당 556.6 달러였고, 7월 6일자 가격은 610 달러였다. 전세계 MGO 평균 가격도 3주 사이에 톤당 655 달러에서 674.5 달러로 급상승했다. 방콕 1.8kg 이상 가다랑어 가격은 6월 22일 시점 톤당 1,300 달러이다.

일반적으로 참치 1톤 어획에 약 0.65톤의 연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선주들은 참치 1톤당 약 396.50

달러의 연료비를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선망선 선주들은 어획물을 운송선에 전재해 방콕까지 운송하는 데 평균 300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로 인해 선주들은 남은 603.50달러로 계류비, 라이선스비, 인건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선망선 사업주들은 앞으로도 선박연료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ofA(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리서치는 올해와 내년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BofA는 향후 18개월간 전세계 석유 수요 회복이 공급 증가를 앞설 것이며, 이는 석유 재고를 더욱 고갈시켜 유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ofA는 유가가 1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6일자



전세계 운임비 폭증, 참치 산업에 영향 우려

中 연토힬 반입 제한 영향도...연말 참치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운임비 상승이 태국 방콕의 가다랑어 운송 지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현지 가공업자에 따르면, 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운임 비용은 약 1만 달러로, 5온스 참치캔 48개(한 상자)당 약 5 달러 격이다. 지난해 대비 5배가량 상승했다.

운임비가 이미 크게 상승했음에도, 각종 해운지수의 상승세는 여전히 전혀 둔화되지 않고 있다. HARPEX 해운지수는 지난해 6월 412포인트였으나, 올해 1월 1,063포인트, 6월 2,034포인트로 1년 새 4배 가까이 급등했다. 또한 해양 관련 리서치·컨설팅 서비스 그룹

Drewry사의 지난 17일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로테르담으로 가는 40ft 컨테이너 가격은 지난해 대비 7배 수준인 1만 1,196달러이다.

참치 산업은 이미 식물성 기름, 연료 가격, 철강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비 상승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결국 올해 말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운임 상승이 계속되면서 참치캔 및 참치 파우치 제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8일자

운임 폭등, 에콰도르 참치 업계에 기회 제공?

경쟁자 태국 침체 틈타 참치 수출 증가

전세계 참치 산업이 운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부 더 나은 여건의 생산자들은 경쟁자의 침체를 틈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Bruno Leone 에콰도르 국립수산회의소(CNP) 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태국은 운임 인상으로 인해 에콰도르에 시장 확대 기회를 내 주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인정했다. 태국은 미국·남미 시장에서 에콰도르의 주요 경쟁국이다.

아시아에서 남미로 가는 해운 비용은 컨테이너 1대당 2,500 달러에서 1만 2,000 달러로 급상승했다. 이로 인해 남미 지역에서 태국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은 반면, 트럭으로 많은 곳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에콰도르가 수혜를 입었다. 에콰도르의 올해 1분기 남미 지역 참치 무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Leone 소장은 에콰도르 기업들이 수산물 분야

전반에서 태국 기업들의 공백을 메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에콰도르 수산·양식업은 수출 증대에 힘입어 15.2% 성장했다.

Leone 소장은 에콰도르 수산업 성장의 다른 이유로 식품 서비스 분야 재개, EPO 어업권, 라니냐 현상 등을 지목했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수온이 낮아져 참치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에콰도르 소식통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조업에 나선 에콰도르 참치 어선 척수는 여전히 적으나, 효율은 매우 높다고 한다.

Leone 소장은 에콰도르 어선의 상당수가 노후 선박이지만, 이 선박들을 개조하거나 신조선으로 대체하면 어업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7일자



IOTC 정기총회,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합의 TAC 40만 512톤...인도 등 5개국 반대

6월 11일 종료된 IOTC 정기총회 결과,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 한도가 40만 512톤으로 결정되었다.

IOTC 과학위원회가 권고한 지속가능한 최대 수치인 40만 3,000톤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글로벌참치동맹(GTA) 등의 NGO가 권고한 34만 1,000톤과는 큰 차이가 있다. IOTC 어선은 2019년 42만 7,240톤을 어획했다.

그러나 IOTC 위원회 회원국 중 오만, 이란, 인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5개국은 영세 어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결의안에 반대했고, 24미터 미만 선박의 경우 예외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합의안은 찬성한 국가에 적용되지만 반대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시조치로 시

행될 예정이다. IOTC는 2021년 말에 공개되는 새로운 황다랑어 자원 현황 평가 자료를 검토해, 자원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2022년 초 특별회의에서 황다랑어 보존조치에 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양에서 어획하는 선망선단의 부유형 FAD 어업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큰 논란이 있었다. 케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몰디브, 스리랑카 등 8개국이 이를 지지했으나, 선망어업 운영국인 EU, 한국, 일본 등의 반대로 인해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투표 가결 하한선인 찬성표 2/3의 달성 여부를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IOTC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법적 자문을 따를 예정이다. WWF에 따르면 개선된 FAD 관리 계획이 채택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4일자

EU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 허용량 소폭 감소 세이셸 허용량, 지난해보다 증가

지난 6월 7~11일간 개최된 IOTC 총회 결과, 2022년 세이셸의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 허용량은 증가했고, EU 허용량은 소폭 하락했다.

EU는 2022년 황다랑어 허용 어획량으로 2021년 7만 3,945톤보다 소폭 하락한 7만 3,416톤을 수용했다. EU 선단은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황다랑어 어획량을 감축했다. 그러나 EU는 다수 연안국으로부터 FAD 어업으로 인한 황다랑어 미성숙 개체 어획을 더 감축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반면, 세이셸은 현재 허용량인 3만 3,211톤보다

많은 3만 5,800톤의 허용량을 할당받았다. 세이셸이 참치 어업 의존도가 높은 영세한 도서국이라는 점이 감안된 결과이다.

현재 오만, 인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이란 5개국은 24미터 미만 선박의 어획 허용량 감축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감축안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IOTC는 다음 주 할당기준기술위원회(TCAC)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22일자



황다랑어, 비타민 B3 가장 많이 함유

미국 MyFoodData, B3 함유량 높은 10대 식품 선정

참치는 다양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이며 특히 높은 수준의 니아신(niacin), 정확히 말하면 비타민 B3를 함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 건강·영양 사이트인 MyFoodData는 B3를 함유량이 높은 10대 식품을 선정했다. 10대 식품 중 조리된 황다랑어 스테이크가 1위를 차지했다.

MyFoodData의 방문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 이상이다. MyFoodData는 미국 농무부 FoodData Central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이트가 선정한 비타민 B3 함유량 10대 식품은 참치(황다랑어), 닭 가슴살 살코기, 돼지 갈비 살코기, 소고기(뼈 없는 소고기 가슴살), 포토벨로 버섯, 현미, 기름 없이 볶은 땅콩, 아보카도, 그린피스(완두콩 일종), 고구마이다.

니아신은 소화 및 신경계 기능과 건강한 피부 유지

에 도움을 준다. 또한 체내 지방 처리에도 필요하다. 니코틴산 형태의 B3는 환자의 고혈당 콜레스테롤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의학용으로 사용된다.

미국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비타민 B3 일일 권장량은 14세 이상 남성 16mg, 여성 14mg이다.

황다랑어뿐만 아니라 모든 참치종은 회, 조리, 캔 등의 형태에서도 높은 수준의 니아신을 함유하고 있다.

MyFoodData 사이트에 따르면 조리된 황다랑어 스테이크 100g에는 22.1mg의 니아신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비타민 B3 14세 이상 남성 일일 권장량의 138%에 해당된다. 오일이 들어있는 날개다랑어 캔에는 일일 권장량의 130%인 20.8mg이 포함되어 있다. 참다랑어 회는 스테이크, 캔 보다 함유량이 낮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23일자

IATTC 특별회의, 합의 무산

8월 정기총회에서 재논의 예정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특별 회의가 지난 6월 10일 종료되었다. 회의 결과 IATTC 회원국들은 4일간의 특별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어기, 연승어업 관리, FAD 추가 조치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중 FAD 조치는 지난 12월 회의와 이번 회의에서 많은 갈등을 촉발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주된 원인이었다.

FAD 사용 한도를 판단하는 데 생분해성 자재 사용 여부를 고려하자는 에콰도르의 제안과 FAD 정보 흐름을 증가시키고 모든 선단의 FAD 사용 상한

선을 낮추자는 EU와 콜롬비아의 제안을 포함하여 관련 사항이 논의되었다.

FAD 이외의 논의, 특히 금어기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기간을 72일에서 90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정할 용의를 보였다. 결국 금어기는 기존의 72일로 유지되었다.

IATTC는 8월 23~27일 개최 예정인 연례 정기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1일자



日 재무성, 5월 참치 수입통계 발표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가격 700엔 초과

일본 재무성 통관총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5월 참치류 수입실적은 선어·냉장 647톤(지난해 동월 대비 23% 증가), 금액 9억 1,600만 엔(37% 상승), 냉동 1만 4,555톤(27% 증가), 금액 156억 6,500만 엔, 가공 3,329톤(8% 감소), 금액 20억 1,100만 엔(8% 감소)을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카미, 내장 제거) 제품 수입량은 3,212톤(2% 감소)으로 4월 대비 1,197톤 감소했다. 전월 대비 감소추세는 2개월 연속으로, 3월과 비교하면 2,227톤 감소했다. 주 수입국인 대만산도 1,909톤(4% 감소)으로 4월 대비 718톤 감소했다. kg당 CIF 단가는 냉동 눈다랑어 전체 평균 722엔, 대만산 723엔으로 양쪽 모두 지난해 동월 대비 31% 상승

해 고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만산의 단가가 700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만이다. 해외선 출어 감소로 인해 불안정한 입하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성적 원료 부족과 단가 상승이 예상되어 사재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비해 냉동 눈다랑어 필렛의 경우, 3월부터 계속해서 1,000톤 이상의 많은 입하량을 기록하고 있다. 필렛 5월 수입량은 1,232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배이다. GG로 만들어 수출하던 원료가 감소해, 단가가 높은 편인 필렛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일부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6일자

日, 아카미(붉은살) 참치 공급난 냉동 눈다랑어 6월 공급량 1만 마리 미만

일본 도요스시장에 6월 상장된 냉동 대형 눈다랑어는 9,298마리로, 1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1만 마리 미만을 기록했다. 도매업자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 어선을 중심으로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한 결과이다. 당분간 아카미(붉은살) 참치의 공급이 어렵다는 전망으로 인해 원료를 둘러싼 경쟁이 격해져, 상장 수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의 경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무리하게 상장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시세에도 큰 영향은 없었다. 이에 비해 올해 6월은 시세가 매우 높아졌다. 수량이 가장 많은 중서부태

평양산의 경우 고가 kg당 2,500엔(지난해 대비 11% 하락), 증가 960엔(22% 상승), 저가 750엔(67% 상승)으로 극단적인 고가 하락·저가 상승 상태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입항한 운반선·독항선의 냉동 참치 양륙량은 5,250톤으로 급감했다. 7월에 7,150톤이 양륙될 예정이지만, 다음 달로 이월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입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선망선 황다랑어 공급 감소도 아카미 참치 공급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6일자



OPRT 세미나, 일본 횡감용 참치 시장 동향 분석 참다랑어·남방참다랑어 수요 침체, 황다랑어·눈다랑어 증가

일본 도쿄해양대학 나카하라 나오토모(中原尚知) 부교수가 2021년 OPRT(책임있는 참치어업 증진기구) 세미나에서 '코로나 사태 일본 횡감용 참치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초밥 전문점·일식당·레스토랑 등 고급 시장 규모는 감소, 중소 음식점·중소 슈퍼·수산시장·배달·온라인 판매 등 일반 시장은 보합세, 대형 마트·회전초밥 체인 등 대중 시장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고급 재료인 참다랑어·남방참다랑어 등의 수요는 침체되었고 일부 일반 시장 재료로도 취급되는 반면, 내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황다랑어나 회전초밥 체인에서 많이 쓰이는 눈다랑어 등은 증가 추세이다.

나카하라 부교수는 해당 발표에서 코로나 사태가 참치 수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요의 경우, 재고·양륙량 회복과 맞물려 대중적 참치 소비가

확대되었으나 이미 한계점에 가까워졌다. 또한 음식점의 휴·폐업으로 인해 고급 시장 수요가 침체되었고, 앞으로 수요가 회복되어도 폐업 여파로 즉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의 경우, 냉동 참치 공급은 대중 시장 수요를 잘 소화하고 있지만, 조업 일정 지연으로 인해 공급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선어 공급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편이지만, 수입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일부 생겨, 수입물입하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나카하라 부교수는 향후 수요 회복 국면을 바라보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판매 및 배달 수요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OPRT 세미나 자료, 2021년 6월 21일

日, 태평양 참다랑어 TAC 20% 확대안 WCPFC, IATTC에 제출

일본 수산청은 지난 6월 25일 태평양 참다랑어 TAC를 소형(30kg 미만)·대형(30kg 이상) 모두 20% 확대하는 방안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 제안했다.

수산청은 TAC 확대안 외에 올해 말에 시효 만료

예정인 ΔTAC 미이용분의 이월 상한 17%, Δ소형어의 TAC 대형어 대체, 2건의 재연장도 제안했다. WCPFC와 IATTC는 7월 27~2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합동 작업반 회의를 통해 TAC 및 통일된 참다랑어 관련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6월 28일자



세계 참치캔 시장, 2030년 11조원까지 성장 전망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4% 성장 예상

캐나다·인도 시장분석기관 Precedence Research가 참치캔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세계 참치캔 시장은 2020년 약 79억 달러(한화 약 8조 8,000억원)에서 2030년 110억 달러(한화 약 11조원) 규모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보고서는 영양가 높은 간편식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변화가 참치캔 시장 성장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하는 여성 인구의 증가도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참치캔의 높은 단백질 함유량으로 인해 선진국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 또한 참치캔 사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세계 참치 시장은 제품 유형에 따라 풍미(flavored,

고추나 야채 등이 첨가된 제품) 제품과 일반(unflavored) 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중 풍미 제품은 장래 최대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특히 세계 신흥국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제품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장차 참치캔 산업의 급성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치 어종 중 가다랑어는 2020년 최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주요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인기가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황다랑어 부문이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거두고, 시장 수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 기사 출처: globenewswire.com, 2021년 6월 10일자

미국 1분기 참치캔 수입, 13% 감소 지난해 역대 최고치에서 다시 평년수준

미국 수입업자들은 2021년 1분기에 참치캔을 총 3만 8,577톤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4만 4,331톤 대비 약 13% 감소한 수치로, 2019년 수입량과 거의 비슷하다. 미국 시장은 EU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도·소매업자들이 재고량을 확보 후, 이번 분기 들어 수요가 크게 누그러졌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수입 가격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EU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 수입 물량은 대부분 줄어들었다. 미국의 주요 참치캔 공급원인 태국 수입량은 11% 감소했고, 인도네시아 수입량도 2,300톤 감소해 2년 전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베트남의 수입량은 3,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다. 필

리핀 수입량 또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746톤까지 하락했다.

멕시코는 지난 2년간 미국 참치캔 시장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다. 멕시코 가공업자들은 불과 2년만에 출하량을 두 배 이상 늘려서 이번 분기에 최고치인 5,062톤을 달성했다. 멕시코 참치캔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갖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 물류 센터와의 근접성, 둘째, 자사 제품의 FOB 가격이다. 이들은 현재 해운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막대한 컨테이너 운송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화물 트럭을 통해 미국 시장에 신속하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4일자



미국, 1분기 태국 참치 자속 로인 수입 24% 감소 베트남·인도네시아·피지 수입 대폭 상승

미국의 2021년 1분기 참치 자속 로인 총 수입량은 1만 1,798톤으로, 2020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FOB 평균가는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톤당 5,568 달러를 기록했다.

피지 가공업자들은 날개다랑어 원료 공급 과잉을 겪었고, 그 결과 자속 로인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피지의 1분기 자속 로인 미국 수출량은 2,124톤으로 2020년 1,739톤 대비 크게 증가해 2019년 2,508톤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

태국은 주요 공급국 중 유일하게 미국 수출량이 감소했다. 1분기 자속 로인 미국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24% 감소했다. FOB 평균가는 지난해 대비 약 1,400

달러 급락한 5,339 달러로, 날개다랑어 공급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미국 수출량은 1,812톤으로, 지난해 대비 53% 증가했고, 2019년 대비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리셔스는 수출량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격은 지난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의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61% 상승한 1,503톤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2020년 FOB 평균가가 유독 낮은 1,695달러였기 때문에, 정확한 성장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28일자

EU, 1분기 중국산 참치 자속 로인 수입 감소 ATQ 혜택에도 불구하고 감소

EU의 올해 1분기 참치 자속 로인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해당 제품의 자율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Quota, ATQ)가 2021년까지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이다. 중국과 에콰도르의 수출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EU 캔 가공업자들은 2021년 1분기 총 6만 8,438톤의 참치 자속 로인을 수입했다. 이는 2020년 1분기 대비 11% 감소한 수치이다. CFR 가격은 1% 상승했다.

EU가 지난해 참치 자속 로인의 무관세 수입 한도를 늘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놀랄만한 결과이다. 현재 EU 캔 가공업자들은 최대 3만 5,000톤의 참치 자속 로인을 무관세로 제3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TQ는 로인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유리하다. EU의 2021년 1분기 참치 자속 로인 수입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지배적이었지만, 물량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한 2만 6,499톤에 불과했다.

중국산 로인이 여전히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 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중국산 로인의 CFR 가격은 3,479 유로로, 최근 급등한 운임료를 감안하면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다.

에콰도르 수출업자들도 지난해 대비 2,500톤가량 감소한 8,613톤을 EU에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분의 1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6일자



황다랑어 부족, 아시아 참치 가공업에 영향 아시아에서 공급 문제 겪는 업체 다수

전세계 곳곳의 대형 황다랑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의 참치 가공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서부태평양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나우루협정당사국(PNA) 데이터에 따르면 선망어선들은 대형 황다랑어 어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kg 이상 황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일일 평균 1톤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평균 16마리 이하를 양륙한 셈이다. 아성체 황다랑어 FAD 어획량도 지난 3월 일일 1.5톤까지 감소했다.

황다랑어 부족 문제로 인해, 대형 황다랑어를 가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한 독일 무역업체 관계자는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부족

문제로 인해 베트남 수출업자로부터 냉동 황다랑어를 조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세이셸 황다랑어 거래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톤당 1,950 유로(2,371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주로 참치캔을 수출하는 세이셸, 모리셔스 등지의 생산 공장들은 황다랑어를 구할 수 없다면 조만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동부태평양은 황다랑어 어획 및 생산에 차질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선망선단의 보고에 따르면 황다랑어 어획량은 호조로, 1분기 총 6만 7,678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어획물의 대부분은 성체가 아니라 FAD로 어획한 아성체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9일자

에콰도르, 1분기 EU 참치캔 사업 치명타 EU 수출 약 26% 감소

2021년 1분기 EU의 참치캔 주문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해외 공급업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 에콰도르의 1분기 EU 참치캔 수출량은 1만 8,496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600톤, 26% 감소했다.

2021년 1분기 EU의 EU 외 지역 참치캔 수입은 지난해 총 13만 1,705톤에서 올해 10만 9,870톤으로 약 2만 2,000톤, 17% 감소했다.

본래 에콰도르에서 1분기에 수출하는 참치캔의 대부분은 스페인으로 향했다. 그러나 스페인 수출량은 올해 급감해, 지난해 대비 63% 감소한 2,983

톤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이다.

올해 에콰도르에서 수출된 참치캔 물량의 56%는 네덜란드로 향했다. 로테르담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스페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푸아뉴기니의 이번 분기 EU 수출량은 3,411톤으로 지난해 대비 36% 감소했으나, 2019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9일자



마주로 5월 참치 전재 대폭 상승...반등 조짐 보여 5월 한달 24건...16개월만의 최다 기록

마셜 제도 해양자원국(MIMRA)의 전재 데이터에 따르면, 상업부두에서 24건의 전재가 있었으며, 운반선으로의 전재가 22건, 어획물 하륙 및 컨테이너 스타핑 2건이었다. 이는 33회를 기록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마주로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참치 전재 항구로, 연 평균 전재량이 400건 이상이었고, 연간 31만 5,000톤의 참치가 항구를 통해 연안 참치캔 가공 공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사태와 마셜 제도 국경 폐쇄로 인해 선망선과 운반선이 입국 제한이 적은 항구로 이동하면서 마주로의 전재 사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Beau Bigler MIMRA 국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증가세는 지난달에 있었던 입국자 14일 격리요건 완화

조치의 영향이 컸다. 5월 초중순 마셜 제도 EEZ 남쪽 경계선에서 선망선 조업 활동이 소폭 증가했던 것도 전재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셜 제도는 코로나 방지책의 일환으로 입항 통제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전재활동이 60% 감소했다. 이 방지책은 마셜 제도를 코로나에서 지켜줬으나, 전재 사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그 결과, 이전 5년간 연 평균 400건 이상이었던 전재량이 2020년 180건으로 급감했다.

2021년의 월별 전재량은 4월까지 평균 11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류공급 사업과 어업 지원 서비스로 발전했던 지역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5월의 전재량 증가는 지난 14개월 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업계에 있어 반가운 신호이다.

* 기사 출처: rnz.co.nz, 2021년 6월 10일자

파푸아뉴기니·키리바시, PNA 주요 전재항 도약

PNA 전체 전재량의 86% 소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의 지난 4월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전재 물량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PNA 항구가 4월 동안 소화한 물량은 7만 1,194톤으로, 3월 6만 8,185톤보다 4%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이다.

지난 4월 선망선들은 파푸아뉴기니 수역 어획량이 감소해 동쪽의 키리바시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전재 작업은 라바울, 마당, 위와크 등 파푸아뉴기

니 항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파푸아뉴기니 항구가 처리한 전재 물량은 PNA 총 전재량의 57%인 4만 580톤이다.

두 번째로 전재 물량이 많이 처리된 곳은 2만 1,000톤을 기록한 키리바시로, 파푸아뉴기니의 절반가량이다. 파푸아뉴기니와 키리바시는 PNA 전체 전재 물량의 86%를 소화했다.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30일자



태국,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급 하락 태국-미국간 참치 무역 영향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태국의 등급이 '2등급(Tier 2)'에서 '2등급 감시 대상(Tier 2 watch)' 단계로 하락했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강제노동·인신매매 현황과 해결 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정하는 보고서로, 등급에 따라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은 3등급 바로 위로 특별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으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참치캔 생산국인 태국의 최대 수출 지역이 미국이라는 점 때문에, 태국 측은 이번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태국은 2020년 미국에 참치캔 13만 787톤을 수출했다. EU는 2019년 태국에 대한 옐로카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은 1등급을 유지했으나,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문제에 관해 다수의 지적과 권고 사항을 받았다. 중국은 올해에도 3등급을 받았으며, 신장 위구르 및 소수민족 감금 문제와 원양어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지적받았다. 중국 자속 참치로인 무역은 무역전쟁으로 유발된 높은 관세의 영향으로 2019년에 대미 수출 90%를 상실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IUU 어업으로 인해 EU 옐로카드를 받았던 베트남은 2등급 감시 목록을 유지했다. 마셜 제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3개국도 2등급 감시 목록에 올랐고, 나머지 PNA 국가는 2등급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되었다.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9일자

EU 어선, 가봉 EEZ 조업 재개

5년간 연간 3만 2,000톤 어획 가능

EU와 가봉의 어업 협정이 수년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체결되었다.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해당 협정으로 EU 선망선 27척과 채낚기선 6척은 가봉 EEZ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EU 선단은 매년 참치 3만 2,000톤을 어획할 권리를 얻는 대가로 160만 유로를 지불한다. 또한 가봉

의 부문별 어업 정책 실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추가로 공여할 예정이다.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EU는 5년간 총 16만 톤의 참치 어획 권리 대가로 총 1,300만 유로(톤당 81.25유로)를 지불한다.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12일자



운반선 활용 등 적절한 폐기물 관리 필요성 제기 선망선 소금 포대, 태평양 섬 환경에 위협

태평양수산위원회(FFA) 의뢰로 작성된 연구에 따르면 FFA에 등록되어 있는 253척의 선박이 브라인(염분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 210톤, 280만개의 소금 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37%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연승선은 중서부태평양에서 선망선에 비해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00척의 연승선에서 402~935톤의 미끼 보관용 주머니에 쓰이는 플라스틱 끈 및 2,958~6,879톤의 판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옵서버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 미끼 관련 플라스틱 쓰레기 241~560톤, 판지 334~776톤이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선 조업 쓰레기는 연승선이 600톤을, 선망선이 80톤을 바다에 버린다고 한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태평양 도서국 항구의 쓰레기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한 5개 항구 중 피지 수바만이 기준 이상의 쓰레기 매립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제도는 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쓰레기 매립지 대부분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강조한 해상 쓰레기 투기 감소 방안은 운반선 활용이다. 운반선은 소형 압축기를 탑재하여 쓰레기 적재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운반선에는 IMO 규정을 준수하는 소각로가 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강조했다.

- △ 간단한 측정 방법 사용, 적은 수의 주요 항구, 장소에 노력 집중
- △ 기존의 역물류(폐기물 관리·처리 관련 물류) 경로 활용
- △ 원양어업국 어선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평양 도서국 항구 하역 금지
- △ 운반선은 반드시 어선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용
- △ 처음에 쉬운 쓰레기 관리 조치를 도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 강화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28일자

카보베르데, 노르웨이 회사에 참치 양식장 사용 허가 23만 6,000m², 50년간

카보베르데는 노르웨이 Nortuna사에 참다랑어 양식을 위한 São Vicente섬 부지 및 수면 23만 6,000m²(해안가 5만 6,000m², Flamengo 해변 근처 만(bay) 18만m²)의 사용을 허가했다. 사용 기간은 50년이며 Nortuna사가 카보베르데가 지급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Nortuna사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지난해 3월부터 부화장 건설, 부화 및 시험 과정을 위한 장비

조립 등을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서양 참다랑어 양식 실시 단계로 연간 생산량은 8,000톤에서 1만톤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단계는 대규모 생산·가공 및 Antão나 São Nicolau와 같은 다른 카보베르데 섬으로 양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7일자



Bumble Bee, MSC 2022년 목표 달성 순항 중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부문 순조롭게 진행 중

미국 수산물 기업 Bumble Bee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Seafood Future 2021 Progress Report」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umble Bee의 Chunk Light 가다랑어 제품은 반년 안에 MSC 조달 기준에 도달 가능한 '궤도에 오른(on track)' 상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조달 프로그램과 전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다랑어 참치캔을 이용하고, EU 국가에 비해 지속가능 인증 품목이 적은 미국 시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Bumble Bee의 지속 가능한 날개다랑어 조달 부문은 '진전 가속화(progress accelerated)' 상태이다.

이들은 2020년에 2023년까지 자사의 Solid White 제품의 원료를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s) 참치로 조달 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Bumble Bee와 모기업 FCF는 250척 이상의 어선이 포함된, 3개 대양에서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을 어획하는 2개 연승 어업에 대한 MSC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평가는 2022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업은 미국 최대의 Solid White 제품 공급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날개다랑어의 상당수가 MSC 인증을 받게 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9일자



대만 FCF, 중서부태평양 FAD 어업 MSC 인증 기준 충족 선망선 22척 인증 취득

대만 수산기업 FCF의 중서부태평양 FAD 어업이 MSC 지속가능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공식 인증되었다. 적합성심사기구(CAB)인 SCS가 MS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인증이 이번 주 통과되었다.

FCF는 2018년부터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스쿨어업 어획물에 MSC 로고를 부착했다. MSC는 한 선박에 인증 어획물과 비인증 어획물을 함께 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

를 최근 자신들의 인증에 추가했다. FCF는 이번 심사를 통해 FAD 어획 인증을 취득해 해당 추가 조항 또한 완전히 충족하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FCF의 이번 평가 대상 선박에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대만, 미국 국적 선망선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1일자



몰디브 참치 어업, 지속가능성 유지로 위기 전통적인 지속가능 어법 유지 어려워지는 중

몰디브의 전통 어업이 특유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상황으로 인해, 점점 유지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몰디브는 수 세기 동안 전통적인 채낚기 어업 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몰디브는 선망, 자망, 트롤 등 다른 형태의 상업적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EEZ를 타국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몰디브의 참치 어업은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Farah Faizal 몰디브 대영고등판무관에 따르면, 몰디브의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참치 어업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몰디브의 가다랑어 채낚기(pole-and-line) 어업과 황다랑어 외줄낚시(handline) 어업은 한 번에 한 마리만 잡는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Faizal의 설명에 따르면 어업 회사들이 연승(longline) 방식을 'hook and line'이라는 용어

로 부르면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혼동해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몰디브 어민들은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 유지로 인한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체 어업 방식을 허가해달라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Faizal은 몰디브 어업자들이 생계 문제로 전통적 어업 방식을 포기하게 된다면 몰디브의 중요한 유산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했다.

몰디브 참치 산업은 설상가상으로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영국으로부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몰디브 수출업자들에게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Faizal은 이러한 조치가 몰디브와 같은 나라에게 있어 치명적이며, 몰디브 참치 산업에 큰 장벽이 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6월 10일자

마루하 니치로, 일본 참치 가공업체 인수

일본 및 해외 가치 사슬 확장 목적

마루하 니치로 그룹은 일본과 해외에서의 수산 사업 가치 사슬을 확장하기 위한 중기 계획의 일환으로 참치 가공업체 Marine Access사를 인수했다.

Marine Access사는 시즈오카현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참치를 중심으로 가공, 초저온 냉동 보관,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직원

은 183명, 자본금은 5천만 엔이다.

마루하 니치로는 인수 관련 성명에서 『우리는 네기토로(참치 뼈에 붙어있는 살을 긁어모은 살로 만든 제품) 등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했으며 신제품들을 중요 제품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6월 24일자



日, 499톤급 원양참치 연승선 준공 7일 출항, 내년 5월까지 남인도양 조업 예정

일본 야이즈참치어업(주)(焼津まぐろ漁業株)의 499톤급 원양참치 연승어선 '제88후쿠쿠마루(第八十八福久丸)'가 준공되어 출항을 앞두고 있다. 해당 어선은 일본 수산청이 추진하는 '돈 되는 어업창설지원사업(もうかる漁業創設支援事業)'이 승인한 일본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의 '원양참치 연승어선프로젝트'에 의해 건조되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어선의 도입,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익성 향상 촉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어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해야 한다.

해당 선박은 선미기관형으로 주기관 동력은 736kw, 회전수 350이다. 추진효율 향상을 위해 SG 프로펠러를 채택했으며, 항해 속력은 11.4노트, 어획물 적재량은 307톤, 최대 승선 가능 인원은 26인(음서버 2인 포함)이다. 최신 기관, 냉동장치, 어로장비,



항해계기, 무선통신장치 등을 장비해 지금까지 경험한 노하우를 잘 살려서 건조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어선은 7월 7일 선원 24인을 태우고 야이즈항에서 출항해, 남인도양 어장에서 남방참다랑어를 조업할 예정이다. 이후 자바 섬 근처 어장에서 눈다랑어, 황다랑어를 조업한 후 내년 5월 중순 야이즈항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5일자

日 기업, 참치 양식용 배합사료 '튜나푸드' 주목 필요 영양소 섭취 최적화된 지속가능 참치 사료

일본 기업 하야시카네산업(林兼産業)이 참치용 배합사료 '튜나푸드(ツナフード)'를 발매했다.

'튜나푸드'는 먹이 활동과 소화흡수성 모두 뛰어난 유일무이한 참치용 배합사료로, 참치의 성장과 사료효율 향상을 모두 가능하게 한다. 참치 치어용 제품도 마루하니치로를 비롯한 원료 구입처와 협

력해 엄선된 원료를 사용했고, 부드러운 질감을 구현해 먹이 활동과 소화성을 양립했다.

해당 기업에서는 참치용 배합사료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먹이 주기 시뮬레이션 작성과 현지 맞춤형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6월 29일자



PNG, 15년만에 참치산업특구 프로젝트 재개 215헥타르 규모의 최대 참치 생산지구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15년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가장 중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태평양해양산업지구 (PMIZ) 프로젝트의 재개 의지를 표명했다.

Lino Tom 수산해양자원부 장관은 수산해양자원부와 국립수산청이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 장관은 최근 재무부 및 Madang 주 정부 측과 회동을 가져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PMIZ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참치산업특구를 목표로

파푸아뉴기니 Madang 주에 참치생산지구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이다. 부지 규모는 215ha로, 이 중 약 100ha가 참치캔 가공공장, 115ha가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프로젝트 시작을 위해 2019년 중국으로부터 1억 6,8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5일자

EU, 카보베르데 원산지 규정 완화조치 승인 3년간 원산지 표기 면제

EU가 카보베르데 참치 업계의 수개월에 걸친 압력 끝에 마침내 원산지 규정 일시적 완화조치를 승인했다. 해당 조치는 EU가 EU의 카보베르데 지역 생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카보베르데 국적 참치 선단 확장 조건 하에 2008년부터 계속해서 승인하였다. EU는 이번에 처음으로 카보베르데의 제안을 거절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코로나 사태가 카보베르데에 끼친 치명적인 영향으로 인해, 결국 마지막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전 완화 조치의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였다. 카보베르데는 지난해 3월 해당 조치의 연장을 신청했으나 드디어 승인을 받게 되었다. 카보베르데가 원산지 완화를 신청한 품목은 자숙 참치 필렛로인 5,000톤, 물치다래(frigate tuna/mackerel) 1,000톤, 자숙 고등어 3,000톤이다.

EU는 총 3년간 원산지 규정 완화를 승인했다. 그

러나 허용량은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가령 자숙 참치 필렛로인의 경우, 첫 해는 5,000톤이 허용되지만 2022년에는 3,500톤, 2023년에는 2,500톤이 허용된다.

EU는 카보베르데에 자체 경쟁력 강화 기간으로 12년을 부여했다. 하지만 카보베르데 참치 산업은 EU 수출 관련 원산지 완화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보여진다. 올해 초 카보베르데 최대 참치캔 가공회사인 스페인 Ubago 그룹 산하의 Frescomar사는 가공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했고, 완화 조치 없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600인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카보베르데는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완화 조치 승인에 대한 EU의 미온적 태도가 수출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22일자



선망선 그물, '유령 어구' 될 수 없는 이유

선망선에 대한 환경단체의 과도한 비판 반박

선망선 그물은 환경론자로부터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한 해의 연구에 따르면 선망선 그물은 '유령 어구(ghost gear, 아무런 조치 없이 바다에 버려져 환경에 해를 끼치는 어구)'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덴마크 어구 공급 기업 Dan Sea의 CEO 겸 오너 Lars Jensen에 따르면, 선망선 그물의 경우 일부분만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나, 심지어 그마저도 트롤, 자망 어구에 비해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선망선 그물이 '유령 어구'가 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해상에 표류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한 어구 제조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선망선 그물은 12톤의 강철 체인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그물이 끊어지면 곧바로 심해에 가라앉게 되며, 애초에 그물이 끊어지는 일 자체가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스페인 업체와 Jensen의 설명에 따르면, 그물 무게만 따져도 소형 참치 선망선의 경우 7~10톤, 대형 선망

선의 경우 20~25톤 정도이며, 어구 전체 무게를 합치면 90톤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다.

Jensen CEO는 또한 선망선 그물이 바닥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게 되고, 뜬줄(floatline)을 포함한 윗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계속 떠 있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어구 업체도 선망선 그물은 자체에 강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물의 나일론 재질은 물을 흡수해 가라앉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망선 그물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23만 달러에서 71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고가의 어구이기 때문에 고의로 버려질 가능성이 낮고, 선주들도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인다. 또한 최근 참치 어업 회사들은 폐그물을 가방, 스포츠 용품, 해먹,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8일자

필리핀 CNPF, PCX 통해 플라스틱 중립 인증 취득

탄소 상쇄와 유사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체계

필리핀 최대 참치 기업 CNPF는 지난 12일 참치 캔을 포함한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발자국(plastic footprint)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플라스틱 중립 인증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CNPF는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관련 NGO '플라스틱 신용 교환(Plastic Credit Exchange, 이하 PCX)'의 시스템

을 활용해 안전하게 순환경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CNPF는 자사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회수한 플라스틱 양을 동등하게 맞춰 플라스틱 중립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13일자



Atunlo, 참치 자숙 신제품군 출시

스테이크, 다타키, 큐브, 블럭 등

스페인 참치 기업 Atunlo가 스테이크, 다타키, 큐브, 블럭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자연산 냉동 참치 신제품군을 출시했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 5월 냉동식품 코너에서 구매 가능한 자연산 참치 버거를 출시했다.

특히 주목받는 제품 2가지는 Tuna Pops와 Tuna Bites이다. Tuna Pops는 튀김옷을 입혀 만든 볼 형태의 제품으로, 소스와 곁들인 전채요리에 적합하다. Tuna Bites는 참치 로인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에서 추출한 살에 튀김옷을 입힌 제품이다. 가정에서 참치



를 건강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부드러운 질감의 참치살과 튀김옷 덕분에 육류·생선 너겟의 완벽한 대체품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7월 2일자

日, 참치·가다랑어 훈제 슬라이스 제품 인기

샐러드·파스타 조리 가능한 간편 식품

일본 수산물 가공회사 (주)카네신JKS(カネシンJKS)가 지난해 출시한 참치·가다랑어 훈제 슬라이스 제품 ‘스모크 de 샐러드(スモーク de サラダ)’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간편 상품으로, 양판점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져 온 ‘수화산식(手火山式)’이라는 전통 기법으로 제품을 훈제한다. 원료를 훈제하며 손으로 만져 온도를 조정하는 기법으로, 현재는 전국에 극히 일부만이 전해져 내려온다.

참치·가다랑어 2개 어종 각각 올리브 오일과 플레인 제품 2종류로 분류되어 총 4종류의 제품이 판매된다. 희망 소매가격은 세금 제외 250엔, 중량은 70g이다.

홈페이지: <http://www.yaizu-kaneshin.co.jp/>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7월 5일자



일렉스 오징어, 어획 호조로 어가 하락

중국 회사 임원, 현재가격 바닥 전망

남서대서양에서의 이번 시즌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58만톤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오징어산업협회 후안 레디니(Juan Redini) 회장에 따르면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공해 약 28만톤, 포클랜드 수역 17만톤, 아르헨티나 수역 13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1, 2월에 호조를 보이며 시작했지만 남쪽 포클랜드 쪽으로 어군이 이동함에 따라 점차 감소했다.

중국 시장 조사 및 무역 플랫폼 Huacai Technology Beijing에 따르면 중국 원양어선이 23~24만톤의 일렉스 오징어를 어획해 외국 어선 어획량 중 약 80~85%를 차지했다.

중국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그 결과 중국 냉동 블록 일렉스 오징어 원어의 가격은 1만 8,900~1만 9,800 위안(2,929~3,068 달러)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40~50% 하락했다.

중국 수산물 어업 및 가공 기업인 Yantai Five Star사의 한 임원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오징어 판매가 좋지 않았지만 올해 오징어 수출 판매가 꽤 좋아졌다』며 『올해 음식점 판매가 좋아졌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렉스 오징어 가격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 수출량은 2019년 대비 물량 기준 36%, 금액 기준 39% 감소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7%, 62% 감소했다.

Yantai Five Star사의 임원은 유럽과 미국 구매자들이 재고 부족으로 대량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낮은 살오징어 어획 전망을 제시하며 살오징어 가격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로리고 오징어 가격은 공급 부족과 높은 운송비로 인한 수급 문제로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6월 28일자

C24 결의안, 아르헨티나-영국 양자 대화 요구

교섭에 의한 해결 반복

UN 탈식민 위원회(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 C24)는 지난 6월 24일에 포클랜드/말비나스 주권 문제를 다뤘다.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정부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도록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합의하에 채택된 결의안은 이 섬의 '특별한 식민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교섭에 의한 해결이라는 것을 반복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6월 28일자



남대서양 기구 “中 오징어 조업 중단 무의미해”

평소의 조업 종료 시기에 맞춘 보여주기식 중단 주장

중국의 남서대서양 오징어 금어기 실시 발표는 평소의 오징어 조업 종료 시기에 맞춘, 무의미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국 농업부는 최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징어 조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2년 연속으로 해당 기간 동안 남서대서양 원양 선단의 조업을 중단시켰다. 중국은 수산자원 보존에 대한 책임의 표시로 올해 동태평양 선단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남대서양어업자원보호기구(Organisation for the Protection of South Atlantic Fishery Resources, OPRAS) Eduardo Pucci 이사는 해당 조치가 일렉스오징어 자원이 소진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원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ucci 이사에 따르면, 중국·대만 등 아시아 선단은

보통 11월 초 남서대서양에 도착해 이듬해 어획 시즌을 시작하고, 특별히 정해진 종료 일자 없이 일렉스오징어 어획이 제로(0)가 되면 조업을 종료한다. Pucci 이사는 지난 6년간 외국 선단이 아르헨티나 수역 외부에서 조업을 시작한 날짜와 종료한 날짜가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7~10월경 해당 수역에 중국 어선이 조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미 그 전에 조업이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ucci 이사는 최근 아시아 트롤선의 유입이 남미 연안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외국 선단이 공해 보존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규정을 회피하며 EEZ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착취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ucci 이사는 중국에 어획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보다 진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7월 12일자

EC, 포클랜드 오징어 75,000톤 무관세 수입 허용

브렉시트 영향 우려 해결

스페인 언론사 Galician daily Faro de Vigo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를 7만 5,000톤에 한해 무관세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Galician daily Faro de Vigo는 올해 EU가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에 대해 자율할당관세(ATQ)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올해 생산분에 대

해 ATQ 제도를 적용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게재했다.

ATQ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의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저율 또는 감면하는 것이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6월 22일자



러시아, 서베링해 명태 어업 MSC 인증 취득

MSC 인증 명태 41만 톤 이상 추가

러시아 서베링해 명태 어업이 MSC 인증을 최종적으로 취득했다. 인증 기관인 Lloyd's register에 따르면 서베링해 명태 어업의 지속가능 인증기간은 취득 일인 2021년 7월 6일로부터 5년간이다.

이제 서베링해 명태 어업은 인증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제품에 MSC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어업의 2021년 TAC는 41만 5,000톤 상당이다.

Lloyd는 인증과 함께 해당 어업에 인증 4년차까지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Lloyd는 러시아 서베링해 어업의 인증을 의뢰한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에도 기존의 항해일지나 전자 기록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 기록 시스템 개발을 권고했다.

Lloyd가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각 트롤선 어구의 수심 및 어구가 해저와 가장 가깝게 근접한 수치를 기록한다. 아울러, 어구가 해저에 닿거나 해저 지형에 닿았거나, 그 외 어떠한 종류의 심해 생물에 피

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분실하거나 버려진 어구는 기록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또한 Lloyd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종 및 중요한 특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의 개발을 요구했다.

러시아 서베링해 명태 어업은 지난 5월 인증 과정에서 세계야생기금(WWF)과 미국수산물가공협회(APA)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번 인증에 앞서 2021년 초에는 12만 6,000톤 규모의 TAC를 보유한 러시아 오호츠크해(SOO) 어업이 MSC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신규 인증을 포함하면,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MSC 인증 쿼터는 160만 톤에 달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7월 6일자

RFC, 2021년 상반기 수산 가공품 생산 22% 증가

어선 어획물 100% 가공 목표

러시아어업회사(RFC)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선상 냉동가공 제품의 생산량을 22%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선상 시설을 통해 명태를 필렛, 연육, 민스 제품으로 가공했고, 청어를 필렛으로 가공했다.

RFC 총 책임자 Viktor Litvinenko는 RFC의 전략적 목표가 어획물을 100% 선상 가공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2분기 RFC는 Viciunai, Meredian, Santa Bremor, KVEN 등의 파트너사를 통해 러시아 국내 시장에 연육 공급을 시작했다. RFC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공급 파트너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7월 8일자



알래스카 명태, B시즌 생산 전망 어두워 명태 크기 감소로 수요-공급 격차 해소 어려울 전망

알래스카 명태 어업 B시즌이 6월 10일 시작되었으나, 업계의 수요-공급 격차 해소 전망은 어두운 상태이다.

알래스카 연안 가공업자 등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베링해 명태 어획 상황은 어획량이 충분하지만 개체당 중량의 경우 250~350g 수준으로 그리 좋지 못하다. 알래스카 연안 공장의 한 임원은 『어획되는 명태 크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면, 업계는 지난해 B시즌부터 이어진 PBO(가시제거) 제품 수요-공급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4월에 종료된 알래스카 명태 어업 A시즌 동안, 생산자들은 업계 사상 가장 혼란스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PBO를 제외한 거의 전 상품의 생산량을 복구시

켰다. A시즌 말 베링해 명태 PBO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4% 감소했다.

알래스카 연안 어선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명태 크기 감소로 인해 PBO 필렛 블록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와 세븐일레븐 등의 주요 고객에게 공급하는 고가의 딥스킨 필렛(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 제품의 생산도 어려워졌다.

Sugiyo USA사 회장 겸 CEO Susan Ruiz는 원료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ugiyo는 고품질 알래스카 명태로 만든 연육 제품 Alaskan Snow Legs를 미국 소매업체에 공급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6월 24일자

러시아 명태 업계, 재고 과다로 냉동 보관 한계 상황 연어-송어 어업 본격화로 한층 심해질 전망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규제 강화 때문에 수속에 3주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운반선을 통한 직접 하역이 허가되지 않아, 블라디보스토크나 한국 부산 등지에서 컨테이너에 환적한 다음 러시아로 운송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나 캄차카의 냉동 창고에는 명태 재고가 쌓이고 있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의 한 임원은 이러한 재고 과잉이 6월 어기가 시작되는 연어-송어 어업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지적했다. 해당 임원은 러시아 당국에 요청해 수출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산을 경유하는 경우 운송의 원활화를 위해 3국간 수출증명서 발행 등 체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중국, 한국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3국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8일자



명태 ‘속근 단백질’, 노년 여성 근육량·근력 향상 섭취 12주 후 근육량·근력 유의미한 증가

(주)일본수산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도쿠시마대 첨단효소화학연구소 당뇨병 임상연구개발센터 모리 히로야스 조교수는 6월 11~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63회 일본노년의학회학술집회에서 명태에 함유된 단백질인 '속근 단백질'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속근 단백질을 섭취한 65세 이상 여성의 골격근과 근력 증가를 확인한 것이다. 연구 결과, 습관적인 속근 단백질의 섭취는 고령자의 근감소증(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장기간의 임상시험에서 드러났다.

(주)일본수산 식품기능과학연구소는 명태 단백질인 'APP'의 근육 증가 효과를 에히메대·도쿄대 등 18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APP 연구회를 조직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모리 조교수는 이번에 해당 연구회로부터 얻은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명태 속근 단백질의 섭취가 고령자의 골격근량이나 근력·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92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험을 실시해 검증했다. 실험군을 속근 단백질 섭취군(이하 APP군)과 유청 단백질(우유 속 함유된 단백질) 섭취군(이하 PLA군)의 2그룹으로 나눠, 1회당 각 소재 단백질 4.5그램이 함유된 시험식을 24주간 제공했다.

연구 결과, APP군은 섭취 개시 12주 후와 24주 후, PLA군 대비 사지의 골격근량과 무릎 신전 근력(펴는 근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운동 없이 속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유청 단백질 섭취 대비 골격근량과 근력 증가가 인정되어, 노인성 근력·근육량 감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6월 29일자

日 “명태 단백질, 10대와 20대에게도 효과 있어” 여대생·남고생 대상 실험 결과 대사량·근육량 증가

일본수산주식회사(이하 닛스이) 식품기능과학연구소는 2021년 7월 3~4일 일본 영양식량학회에서, 명태 속근 단백질이 여대생과 남자 고교생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여대생 20명을 대상으로 속근 단백질 4.5g 함유 어묵 스틱을 10주간 매일 섭취하게 했다. 실험 기간 동안 과도한 운동이나 폭식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했다. 그 결과, 기초대사량이 약 7.2% 증가했고, 사지 골격근량지수(SMI)가 증가했다.

또한 연구진은 고교 축구부원 36명을 대상으로

도 실험을 진행했다. 시험 대상자는 명태 속근 단백질 4.5g을 함유한 어묵 스틱을 8주간 매일 아침과 점심 사이의 간식으로 섭취했고, 그 외에는 평소의 운동이나 식생활을 유지했다. 개입 전 4주, 개입 당일, 개입 4주차, 8주차에 각각 1회씩 근육량 측정을 실시한 결과, SMI 변화량은 4주차~8주차에서 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4주차~8주차의 SMI 변화량은 개입 0~4주차 변화량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 기사 출처: 일본수산주식회사, 2021년 7월 7일자



日 수산청, 공치 흥어 분석·대응책 검토회 개최 산란 장소 이동, 먹이환경 악화 등 원인으로 지목

일본 수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에 걸쳐 공치 등의 기록적인 흥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하는 「흥어 문제 관련 검토회」를 개최했다.

공치의 경우, 8~11월 오야시오 해류(북극해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흘러 북서 태평양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일본의 동해안과 부딪치는 해류)를 따라 산란을 위해 일본 연안으로 남하한다.

그러나 쿠로시오 해류(대만 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일본을 거쳐 오르는 해류)의 직선화로 인해 치어가 근해 지역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수괴(해수 덩어리)에 의해 남하 경로가 가로막힌 산란기의 공치들이 근해를 배회하게 되면서, 산란 장소와 치어 성육 장소가 근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근해 지역은 먹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성장악화, 사망률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해 자원량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 외국 어선의 조업 또한 영향을 끼쳤다.

해당 검토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

도 거론되었다. 그간 공치, 살오징어 등의 어종은 주기적 기후 변동에 따른 장기적 어획량 변동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기존의 기후변화 패턴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해수면 수온 변화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지목되었다. 또한 해당 검토회에서 거론된 내용에 따르면, 수온이 평균 2℃ 상승하면 2060년대 인도양과 태평양의 최대 어획 가능량은 약 20%, 4℃ 상승할 경우 60% 감소한다는 연구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앞으로의 수산업은 지구 차원의 환경변화로 인해 더욱 다양한 어종 어획이 증장기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현장 데이터 공유 활성화, 다목적 어선 운영 등 환경에 따라 탄력적 전환이 가능한 사업 등이 지목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6월 17일자

북태평양 공해서 공치 어선 약 30척 조업

1일 중국·대만·러시아 어선 조업 시작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7월 1일 시점 중국·대만·러시아 어선이 북태평양 공해에서 공치 조업 중이다.

중국·대만 어선은 약 30척, 러시아 어선은 사할린주 사이라 그룹 1척, 연해주 드브로플로트 그룹 1척으로 도합 2척이 현재 조업 중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아직 어군의 집어 상태가 약하다. 이로 인해 어업 개시일로부터 7월 1일 시점까지 사이라 그룹 어선의 어획량은 140톤 미만에 그쳤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7월 5일자



日, 불법 수산물 유통 규제법 검토회 개최

공치·오징어·연육 등 규제대상 후보군 거론

일본에서 국내외 불법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산유통적정화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이하 수산류적법제도)' 검토회의 제3차 회의가 6월 30일 개최되었다.

유통 적정화법이 시행되면 지정된 어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은 수출국 정부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수산청이 제시한 수입수산물 어종 선정 기준안으로는 ①IUU 어업 전적이 확인된 어종, ②자원 상황이

나쁘고 단가가 높은 어종, ③일정량 이상 수입이 있는 어종, ④별도의 규제가 없고 법 시행 시점부터 대응 가능한 어종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수입 어종 중에서 위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으로는 공치, 오징어, 전복 등이 제시되었다. 가공품 중 규제 대상 후보는 건오징어, 공치 통조림, 어분, 연육 등이 거론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5월 13일자

북태평양 공해 공치, 지난 여기보다 큰 편

마리당 130~150g...대만 어선 18척 조업

현재 북태평양 공해에서 조업 중인 대만 어선이 어획한 공치의 크기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 어선은 7월 초부터 현재까지 18척이 조업 중이다. 어획된 공치의 60%가 130~150g 가량으로, 평균 100g 전후였던 지난

여기에 비하면 큰 편이다. 어획 추세는 저조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출어가 늦어진 지난 여기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전해졌다.

대만 어선이 현재 조업 중인 위치는 동경 167~168도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13일자

日, 러시아 수역 공치조업 9월 확정

9월 1일~10월 31일 진행 예정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은 지난 6월 29일, 어협 소속 붕수망 어선의 각 톤수별 출어일을 지난해와 같은 일자로 정했다.

어선의 각 톤수별 출어일은 10톤 이상 20톤 미만 8월 10일, 20톤 이상 100톤 미만 8월 15일, 100

톤 이상 8월 20일로 정해졌다.

러시아 수역은 8월 조업을 하지 않고, 9월 1일 조업을 시작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7월 2일자



日 수산청, 2020 수산백서 발표

2020년 어업 검토 및 2021년 일본 어업 정책 설정

일본 수산청이 매년 발간하는 수산백서를 통해 2020년 동향 분석과 정책 검토, 2021년 정책 설정 등을 발표했다.

수산백서에 따르면 일본 국내 소비량은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노르웨이, 한국보다 적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일본의 수치에 근접하고 있다.

2020년 일본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약 724만 톤, 자급률은 56%이다. 식용 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은 23.8kg이다. 가장 많이 소비된 선어 수산물은 오징어, 새우, 연어, 참치, 방어 순이다.

식품 안전과 지속가능 수산·양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10개 어업이 MSC 인증, 13개 양식업이 ASC 인증, 7개 어업과 41개 양식업이 MEL 인증을 취득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지역 브랜드 판촉 및 HACCP 전면

도입 등을 추진했다.

일본은 중국 정부의 자국 선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일본은 동시에 연료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나 수협이 자급 조달이 부족할 경우 등에 한한 보조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1년 정책에서, 일본은 2020년 개정된 수산법 시행을 통해 TEC에서 TAC로의 전환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어종의 80%를 TAC로 관리하고, 개별 쿼터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다.

최근 일본 수산청 당국은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우선 해양 관련 자격시험을 서면 대신 구두로 시행하고, 외국인 기술인턴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며, 어촌 협동조합에도 지역 어업 참여를 원하는 고숙련 외국인 어업 종사자를 모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6월 28일자

日, 최대 에너지 절약 가능한 프로펠러형 키 출시

추진력 보존 가능...선회 성능, 소음 절감 효과도 우수

일본 카모메프로펠러(かもめプロペラ)사가 출시한 신제품 키 「게이트 리더(R)」가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독립적인 2개의 키를 프로펠러 양측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2,500톤급 컨테이너선 「시게노부(しげのぶ)」에 「게이트 리더(R)」를 탑재한 결과, 해상 시운전 시 연료 소비량이 일반 키를 장착한 동형 선박 대비 14% 절감되었고, 실제 항해에서 약 20% 절감되었다. 해상 조건이 나쁜 해역의 경우 무려 35%가 절감되었기 때문

에, 기후가 나쁜 해역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도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이트 리더(R)」는 2개의 비대칭 방향 키를 각각 적절한 타각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저속 운항 시 회전 직경이 일반 키보다 훨씬 작아 저속 선회 성능이 우수하다. 최고 속력 운항 시의 선회 성능도 IMO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해당 제품은 배치 특성상 소음 절감 효과도 있어, 일반 키 대비 5db 적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6월 22일자



오염 처리수 해양방류 관련 일본 언론 동향

■ 도쿄전력

- 트리튬 분리 기술 공모 진행(NHK, 6.20)
- 해양 방류로 인한 풍문피해 배상 계획 올해 여름 중 제시 예정(가호쿠 신보, 6.22)
- 방류 처리수 농도 측정 방식을 실측이 아닌 계산으로만 예측하고자 하는 도쿄전력의 방안에 대해 규제위에서 이의 제기(교토 통신, 6.10)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8월 중순까지 해양 방류 계획 작성 및 신청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TV 아사히, 6.9)

■ 일본 국민 반응

- 후쿠시마 현과 이바라키 현에서 일본 정부 주도 작업반 회의 개최, 어업 관계자들 여전히 해양 방류 반대 의견 多(후쿠시마 민보, 6.26)

■ 국제 동향

- IAEA 해양 방류 감시 프로세스에 UN 관련 위원회 회원 중,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한 국가의 전문가들도 초청 검토 중(시사통신, 6.7)

日, '자본성 대출' 대상 농림수산까지 확대 추진 적자기간 동안 금리 지불 없이 대출기간 말일에 합산하는 제도

일본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이하 JFC)의 다나카 카즈호 총재는 본래 중소기업과 민생 관련 사업 대상인 '자본성 대출(資本性ローン)'이라는 제도의 이용 대상을 농림수산사업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성 대출은 사업 적자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금리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대출기간이 끝날 무렵에 합산해서 변제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자산 규정상 이 대출이 자기자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체질 개선을 위한 자본성 자금으로 대출되는 자금이다.

다나카 총재는 해당 제도를 농림수산업에 도입하

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동시에 해당 제도가 농림수산업에 적합하다는 점을 일본 농림수산성에 설명하여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민생 사업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해 13년간 대출 8,657건, 금액 200억 엔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대상 대출을 시작했으며, 올해 4월 말 시점에서 대출 2,646건, 금액 4,349 억 엔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6월 14일자



WTO, 수산보조금 협상 합의 시한 9월로 연기 개발도상국 면제, 유해 보조금의 정의 등 의견 불일치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차별 대우는 합의에 발목을 잡는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에 대한 유연성 허용 논란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WTO 회원국 장관 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WTO 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이러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각국 대표단 단장들에게 말했다. 합의 최종 마감일은 7월 15일이다.

제네바의 한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진행 상황이 예상보다 느렸다고 한다. 대표단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설정 및 적용 방법과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어업으로 간주되는 부문, 제외 적용가능한 부문의 구분 방법과 관련해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합의안 수정에 대한 제안서는 강제 노동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미국, 최종 합의안에 포함된 남획에 대한 정의를 보다 강력하게 변경하기를 원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그룹에서 나왔다. 개발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원양어업 선단들이 그들의 조업 수역을 장악하는데 자유재량을 부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

이번주 초 유럽어업인연합(Europeche)은 EU가 유류 보조금을 계속 제공할 권한을 옹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어업인연합은 낮은 유류 가격으로 다른 관할권의 선단이 성장한 반면 EU의 경우 최근 수십 년 동안 감소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6월 18일자

G7 지도자, 국제 공급망 강제노동 근절 결의 참치업계 영향 가능성 존재

G7 지도자들은 지난 6월 11~13일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개인을 강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세계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10월 개최될 G7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집단적 노력 강화를 촉구했다.

G7 정상은 국가가 후원하는 취약집단이나 소수 집단의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G7 정상은 이와 같은 발언은 EU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 기준을 전 공급망에 걸쳐

완전히 투명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지난 3월 유럽의회의원(MEP)들의 발언에 뒤이은 것이다.

유럽의회의원들의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개인 및 지구 환경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책임지게 하는 법에 찬성한다는 발언이었다. 이는 EU에서 사업을 하는 참치 기업들에게 국제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잠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EU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의 공급망을 책임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6월 15일자



크릴 업계, 자체 보존 계획으로 MPA 대체 방안 모색 MPA, 자원보존을 위한 유일한 도구 아니다

크릴 어업 업계는 남극에서 새로운 해양보호구역(MPA)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실시해온 보존 및 자료 수집 노력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지난 4월 미국 John Kerry 기후특사는 미국이 EU, 영국, 호주, 노르웨이, 우루과이와 함께 300만km²에 이르는 동남극 MPA와 웨델해 MPA의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크릴 어업회사인 Aker BioMarine의 지속가능성 및 남극 업무 책임자인 Pål Einar Skogrand는 『MPA는 남극해 관리 및 정책에 있어 보다 넓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Skogrand는 『남극 어업 업계는 보존조치가 부재한 부분에서도 크릴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우리는 펙귄 번식기 동안 남극 반도(Antarctic Peninsula) 내 7만 4,000km² 규모의 구역에서 조업을 제한해 왔고 이 지역 내 가장 큰 아텔리 펙귄 서식지 중 하나를 연중

폐쇄해왔다』고 말했다.

크릴 컨설팅 회사 Tharos의 Dimitri Sclabos 본부장에 따르면, 어업 회사들은 웨델해 MPA 지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clabos는 『웨델해 MPA 구역은 현재 어업 가능한 구역으로 어업 참여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며 『과거 조업 기록을 기반으로 쿼터를 할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큰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Sclabos는 웨델해 MPA 지정은 러시아가 광범위한 생물량 평가를 끝낸 FAO 58해구(남극남인도양을 아우르는 FAO 경계)에서의 어업 노력 가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Sclabos에 따르면 남극 조약의 조항들은 2048년에 재검토될 예정으로, CCAMLR 투표 모델 변경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MPA 승인 여부에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CCAMLR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면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6월 21일자

EC, 남극해 보호구역 지정 촉구 결의

남극해 2개 지역 300만 km²

유럽의회(EC)는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남극해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조치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U는 남극해 대규모 MPA 2개 지역 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확정된다면 300만 km²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MPA가 지정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원회(CCAMLR) 회원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인해 최근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von der Leyen 위원장은 2020년 9월 연설에서 남극 해역 보호를 위해 EU의 외교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번 표결은 위원장에게 이 사안에 대한 이행을 요구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7월 9일자



식물기반 인공어육 제품, 지속 성장 전망 매년 평균 28% 성장 기대

전 세계 식물기반 인공어육 제품 규모가 2031년까지 13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컨설팅회사 Fact.MR은 식물기반 인공어육 시장이 '21~'31년 동안 연평균 28%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경 문제 고려, 수산 자원의 급격한 악화, 건강 지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식물기반 어육시장은 '16~'20년 동안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였다. 가능한 한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영양을 섭취하는 비거니즘 등의 확산 등도 성장세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Fact.MR의 분석에 따르면 햄버거용 재료 또는 필렛이 식물기반 어육시장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제품이다. 2031년까지 식물기반 새우 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료별로는 밀 기반 단백질 제품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콩 기반 단백질 제품이 식물기

반 어육 제품의 최소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채널별로는 외식이나 푸드 서비스 업체가 주를 차지했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외식업체가 타격을 입었지만, 온라인 서비스 등의 증가가 이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물기반 어육 제품은 생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 등의 과제가 있다. Fact.MR은 식물기반 어육 제품을 생산하려면 고액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자에게 장벽이 있다는 점, 제품 가격 때문에 저소득 소비자에게 접근 장벽이 높다는 점, 지역에 따라 식물 기반 인공어육 섭취 이점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있다는 점을 향후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6월 15일자

Aker BioMarine, 크릴 탐색 무인수상정 신조 크릴 탐색 시 연료 소비 줄여 CO2 발자국 최소화

노르웨이 크릴 생산 업체인 아커 바이오마린(Aker BioMarine)은 남극 수역에서 크릴 어업의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르웨이 콩스버그 마리타임(Kongsberg Maritime)사에 사운드 무인수상정(sounder unmanned surface vehicle)을 신조 의뢰했다.

Aker BioMarine의 선박 운항 부문 상무인 Frank Grebstad는 『무인수상정을 사용하면 크릴

탐색 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고 확보한 데이터로 크릴 어선들이 더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어 CO2 발자국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 무인수상정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7월 4일자



中 수산업계, 엄격한 정부 통제로 생산 차질 양식업과 수산물 수입 비중 증가

중국 수산기업 Meichu Foods의 Joe Qiao 사장이 북대서양 수산 포럼(North Atlantic Seafood Foru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획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중국 수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단속의 영향은 2018년 통계 수치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8년 수산물 생산량은 7% 감소한 6,400만 톤이었다. 생산량은 2020년 6,550만 톤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양식 생산의 비중이 전체 수산물 생산의 78%를 차지하는 등, 양식업의 비중이 매우 증가되었다.

수산물 수출입 수치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19년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630만 톤, 수출은 430만 톤을 기록했다. 2015년 수입 408만 톤, 수출 406만 톤으로 균형을 이룬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수입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2019년 수산물 수입액은 187억 달러로, 2015년 90억 달러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수출은 2015년 이후 200억 달러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2019년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 지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다. 수입량은 전체의 16.4%인 120만 톤, 수입액은 31억 달러이다. 수입의 대부분은 새우, 병어 등 저렴한 어종이다.

러시아는 2019년 최다 수입 지역 2위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수입액은 23억 달러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3위는 에콰도르이며, 페루, 인도, 캐나다, 베트남, 미국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에는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6월 10일자

中 잔장항, 아시아 11개국 냉동제품 수입 제한 7월 15일까지 인도, 파키스탄 등 11개국 수입 정지

중국 광둥성 잔장항만센터는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시아 11개국의 냉동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11개국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몽골이다. 광둥성의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 감염

률 상승으로 인한 확산 방지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둥성의 규제 강화는 이미 최대 항구인 선전항과 광저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냉동수산물의 수입을 컨테이너 환적 제품으로 제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6월 16일자



Norebo, 1억 1,600만 달러 규모 인수 '청신호' 성사되면 대서양 대구, 해덕대구 쿼터 1만 1,000톤 확보

Norebo 계열사 Karat-1 OJSC사는 러시아 연방반 독점청(FAS)으로부터 어업 회사 Saami사의 지분 100% 인수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받았다.

러시아 최대 어업 쿼터 보유 기업인 Norebo는 이번에 Saami를 인수하게 되면 대서양 대구 쿼터 8,870톤과 해덕대구 쿼터 2,700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또한 Saami는 바렌츠해 새우 어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Norebo의 어획 쿼터 보유량은 명태, 대서양대구, 해덕대구 외 기타 어종을 합쳐 42만 톤 이상이다.

그러나 인수 계약 문제는 현재 Saami 내의 지분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잡한 상황으로, Norebo 측에 따르면 FAS의 예비 승인은 받았으나 Saami 내의 분쟁이 종식되어야 인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러시아 수산청은 신규 어선 건조 및 육상 가공 공장 건설의 대가로 추가 쿼터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 수산청은 2023년부터 극동어업에 배정된 신규 투자 쿼터의 약 20%를 분배할 예정이다. Ilya Shestakov 러시아 수산청장은 이르면 2022년부터 가공 공장 쿼터를 배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수산청의 투자 쿼터 할당이 러시아 수산 분야의 인수 활동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 보고 있다. 러시아 수산정보국장 Alexander Savelyev는 전체 TAC의 20%를 추가로 회수하겠다는 러시아 수산청의 발표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어업 분야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ion of Fisheries of the North 전무 Konstantin Drevetnyak는 이로 인해 향후 5~8년간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인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대서양 대구·해덕대구 TAC 감소도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6월 23일자

ICES, 바렌츠해 대구 쿼터 20% 삭감 권고 해덕대구 쿼터도 20% 삭감 권고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는 2022년 바렌츠해 대구와 해덕대구 쿼터 모두 20%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

ICES는 올해 말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수산위원회에서 결정될 2022년 대구 쿼터가 70만 8,480톤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2021년 권고 88만 5,600톤보다 20% 감소

한 수치이다.

ICES는 해덕대구의 경우 2022년 쿼터가 18만 3톤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2021년 권고 23만 2,537톤보다 22.6% 감소한 수치이다.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수산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0월에 쿼터를 최종 결정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6월 15일자



헌시

(사모아 선원보지 위령탑)

박목월

바다로 뻗으려는 꿈을 안고 오대양을 누비며 새 어장을
개척하고 겨레의 풍요한 내일을 위하여 헌신하던 꽃다운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허망함이어.

그들은 땅끝 망망대해 푸른 파도 속에 자취 없이 사라져
갔지만,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줄기차게 전진하는 조국 근대화와 겨레의 번영 속에 그들의
승고한 열과 의지는 살아 있으며 수산한국의 무궁한 발전
속에 그들은 영원히 숨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영을 위로하기 위하여 원양어업의 뱃길이 자주
오가는 이역의 대양과 성좌 아래 정성을 모아 이 탑을 세우
나니 위대한 개척자의 영이어 보람찬 겨레의 핏줄이어
이곳에 편히 깃드소서.



해양수산부 원양어획물 전수조사, 불법어획물 '0'

상반기 부산항 입항 원양어획물 3천 5백 톤 전수조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산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부산항으로 입항한 국내 원양어선의 어획물(다랑어, 새치류 및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 약 3천 5백 톤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는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특성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간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항적조사 및 어획기록 검증 등을 실시하여 원격으로 불법조업 여부를 감시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의 경우 국제수산기구의 요청이나 불법어업 제보 등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예방차원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한 국내 유입 및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상반기 국내에서 어획물을 하역한 모든 국적 원양어선을 대상(14척, 3천 5백여 톤)으로 하였으며, 점검 결과 불법어획물을 어획·적재한 원양어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일부 원양업계 관계자들이 “원양어선 1척이 어획량을 모두 하역하는 4일 동안 새벽부터 현장에서 어획물을 전수 점검하고 빈 어창의 바닥까지 뜯어보는 감독공무원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업감시센터는 앞으로도 불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입을 꼼꼼히 감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불법어업 대응 관련 세계해사대학과 협력

‘온라인 서명식’으로 개도국 대상 교육 훈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세계해사대학(총장 Cleopatra Doumbia-Henry)은 6월 30일(수)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불법어업 예방·방지·근절과 어선안전 제고를 위해 ▲ 전문교육교재 개발 ▲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기로 합의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사업 이행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KMI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산·해사분야 연구 및 콘퍼런스 개최 경험 등을 토대로 교육교재 개발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WMU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북극 공해 조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레짐이 가동되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2021.6.25. 발효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이하, 북극해 어업 협정)」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2021.6.15.-16.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동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1년 6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만일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 펭귄마을에 이어 보호구역 지정

제43차 남극조약 당사국회의(6월 14~24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남극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 (일명 펭귄마을)'에 이어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두 번째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펭귄마을에 비해 면적이

3.4배(0.98km² : 3.31km²) 넓고, 번식하는 펭귄의 등지수도 6.4배(4,800 : 30,000) 많다. 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인 아델리펭귄과 표범·웨델물범의 서식지이지만, 최근 관광·연구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중국·이탈리아가 공동으로 2019년 남극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약의 협의당사국들이 남극의 특정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미주서안 수산물 수출에 선복 우선 배정

중소중견 수산식품 기업에 우선 선복 배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 서안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 수산식품 기업에 우선 선복 배정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수산식품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임시선박에 매월 65TEU(냉동 50TEU, 일반 15TEU)의 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고, 7월 중순부터 수산물 수출업체에 배정한다.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6월 24일부터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선박일정과 선적물량 접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식품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수산물 지원 자금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수산식품기업 육성 바우처, 선도조직 육성, 유망상품 개발)에 더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업체가 올해 안에 지원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원 사업 문의처

▶ 임시선박 선복 배정:

aT 수산수출부(061-931-0853, 0856)

▶ 우수수산물 지원:

aT 정책금융부(061-931-1143)

▶ 수산식품기업 육성 바우처· 선도조직 육성: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2240-8525)

▶ 유망상품 개발:

aT 수산수출부(061-931-0853, 0856)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우리측 전문가 참여”

日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 검증,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미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했다. 우리 측 전문가로는 김홍석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김홍석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한국 측 수석대표로 활동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이다.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日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온실가스 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2023년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10일부터 6월 17일 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IMO) 해양 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 항해선박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번 협약 개정으로 그 이전에 건조되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협약 개정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EEXI)’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다.

신조선의 경우 건조 단계부터 선박의 제원으로 선박 에너지효율설계지수(설계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사전적으로 계산한 값, EEDI)를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 선박은 EEDI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운항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사전적으로 계산한 값, EEXI)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운항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량을 사후적으로 계산한 값, 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1999년~2009년까지 건조된 선박의 선종 및 톤급별 선박에너지효율 평균값) 대비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선박의 효율

을 높여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여부를 검증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현존선은 2019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에 비해 2020년~ 2022년까지는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 지수가 개선되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 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은 후에야 운항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 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계산하여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하였고, 이 달 말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검사기관은 선사가 스스로 선박별 에너지 효율값(EEXI, CII)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CO2)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국수산식품관 개설

미국 아마존, 태국 쇼피 등 해외 온라인상점에 한국 수산식품관 개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수산식품의 주요 수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4곳, 중국 타오바오, 미국 에이치프레스, 아마존, 태국·싱가포르 쇼피와 협력하여 한국 수산식품관인 'K-씨푸드관'의 운영을 7월 5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씨푸드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식품 100개사의 다양한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소개되며, 현지 소비자들은 PC와 모바일 기기로 해당 온라인몰에 접속하여 한국 수산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K-씨푸드관에서는 비대면 구매방식인 라이브 방송 판매(Live Commerce)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현지에서의 소비 활성화 시점과 온라인몰 자체 주요 소비시즌에 맞춰 할인 쿠폰 발행, 무료 배송, 사은품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K-씨푸드관 입점대상 기업은 한국수산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우리나라 수산식품 기업은 수출 지원 신청 누리집(biz.kfish.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 1000인회 출범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 다짐...성명서 발표

한국이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1000인회)의 출범식이 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전 해수부 장관),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대표, 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 등 1000인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조정제·유삼남·이주영·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 박성현 목포 해양대 총장, 장영수 부경대 총장 등 주요 인사 7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핵심은 성명서 낭독이었다. 1000인회는 이날 해양정책, 기후정책, 조선산업 분야 등으로 나

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해양수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예산 증액, 해수부와 기상청 통합 및 조선업무 관장부의 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과제로 헌법 개정 시 해양의 가치 반영, 국가 해양위원회 설치, 해양관련 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물류부 개편, 해운 공동행위 관리제도 개선 등 7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1000인 모임 관계자는 "해양수산정책 핵심과제에 대해 운영진과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 채택제안을 확정하고, 9월 중에 주요 정당에 전달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박설진	차장	589-1605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조성환	과장	589-1606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공길웅	과장	589-1608			진호경	부장	589-1616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09			조성주	과장	589-1617	부양, 품치
	김민재	사원	589-1620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부산지부	-	이형균	이사	(051)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최상진		사원	589-1619	공인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계량소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th style="width: 15%;">센터장</th> <th style="width: 15%;">044-868-7360</th> <th style="width: 15%;">협력센터 총괄</th> <th style="width: 15%;">국제협상지원팀</th> <th style="width: 15%;">원태훈 <th style="width: 15%;">전문관</th> <th style="width: 15%;">044-868-7831</th> <th style="width: 15%;">일반/지역수산기구</th> </th>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th style="width: 15%;">전문관</th> <th style="width: 15%;">044-868-7831</th> <th style="width: 15%;">일반/지역수산기구</th>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해외진출지원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832	일반/지역수산기구 및 일본 업무
		이원영	행정관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통계, 협의회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5호

발행처 : 2021년 7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 윤명길
 편집인 :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농림축산검역본부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치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명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조기류(민어과) 체수용 생선으로 제격
--	--------------------------------

	꽁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는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